

www.kipa.org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창조와 도전으로 반짝이는
'발명특허'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밝히는 발명과 특허 이야기

발명특허

VOL.449
2014
NOVEMBER·DECEMBER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전문정보지 [발명특허]는 한국도서집자유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는 본회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발행일 | 2014년 12월 5일

발행처 | 한국발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발행인 | 구자열

편집·기획 | 한국발명진흥회 기획부 고아라(02.3459.2727) www.kipa.org

편집디자인·제작 |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CONTENTS

꿈꾸고, 행동하고, 창조하라



06 IMAGINATION

위기란, 세상을 새롭게 열어가는 문이다

08 ACTION

- ① 구자열 회장, 한국발명진흥회 제17대 회장 취임
- ② 2014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 ③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시상식

16 CREATION

'위기' 이후의 '기회'를 보기 위해

20 IP FOCUS

- ① 가격경쟁의 해답은 '특허경영'이다



Cover Story

- ▲ 지구촌 곳곳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층적이며 광범위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의 속성이 일시적인 것에서 지속적인 것으로 바뀌면서 그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한 '위기감'이 점차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 미래세계의 청사진과 함께 변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 ② 권리자에게 특히 과도한 노력을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 ③ '지식재산권 심사품질 높이기' 진단과 전망
- ④ 해외 게임의 국내진출과 지식재산권 분쟁

36

발명家 사람들

따뜻한 마음 듬뿍 담아 맛있게 버무리다

40

무한상상 인터페이스

'가능성의 발견'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열다
- 서울지식재산센터

44

융합콘서트

딤러닝으로 공감각의 비밀을 밝혀볼까?

46

지식 더하기, 기술 나누기

특수 CCTV의 글로벌 강자를 노린다
- (주)영국전자

50

생활 속 발명이야기

발명, 생각할수록 커지는 기쁨

52

IDEA 공작소

흘러간 시간에 덧붙여 예술의 꽃을 피우다

56

글로벌 동향

60

IP NEWS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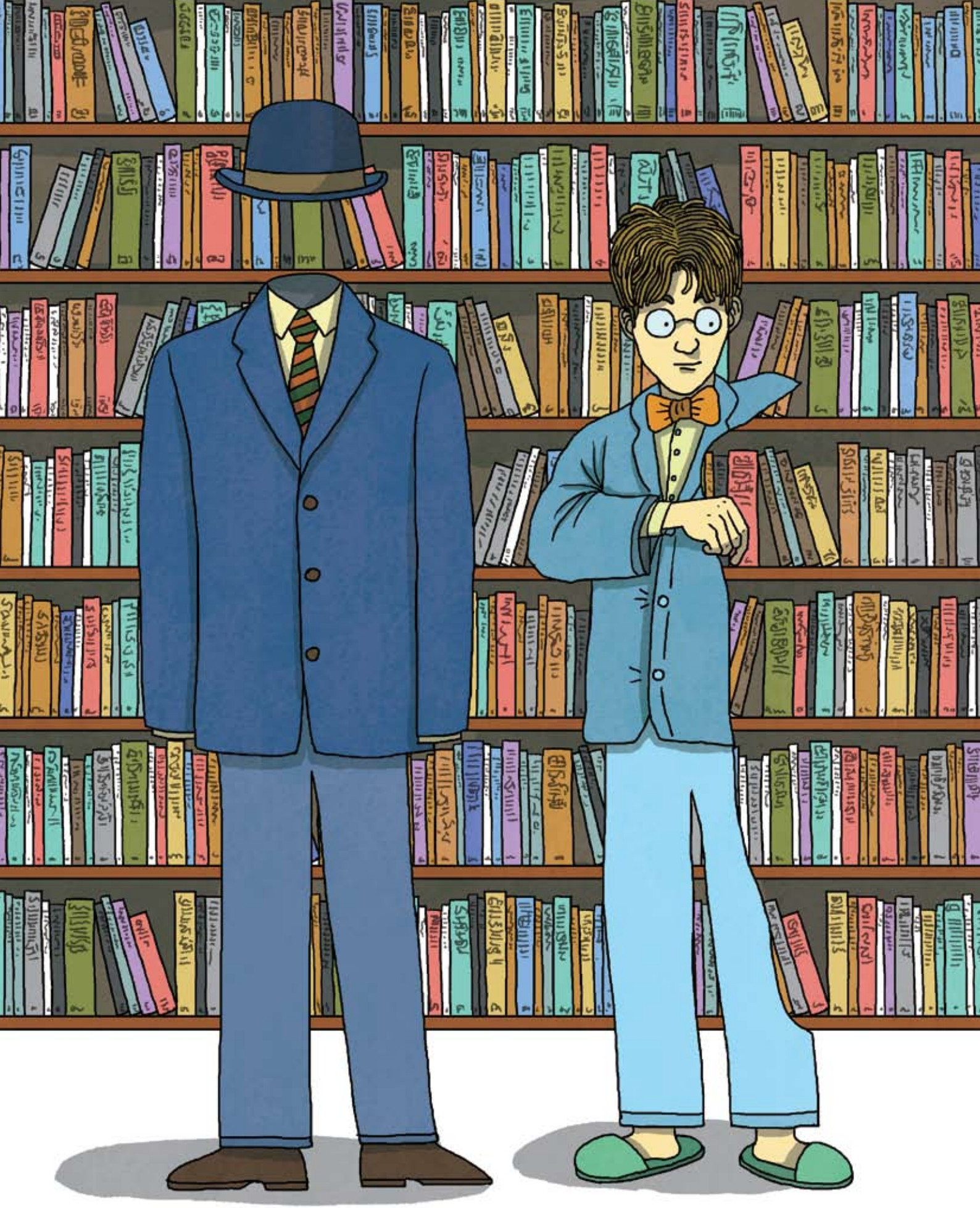
KIPA NEWS

70

REVIEW

72

SENIOR INVENTOR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로’ 해리포터 투명망토 개발 성공



영화 〈해리포터〉를 보면, 주인공 해리포터가 투명망토로 몸을 숨긴 채 마법학교 곳곳을 누비며 비밀의 단서를 찾는 장면이 나온다. 시야에서 물체가 사라지는 이 기이한 장면은 영화에서나 등장할법한 상상 속 이야기였다. 그러나 얼마 전,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로체스터대학 연구팀이 이를 현실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동안 등장했던 ‘투명망토’ 기술은 개발 비용이 비싼 데다 정면에서 똑바로 볼 때만 기능이 유지되는 한계를 보여 왔다. 그러나 로체스터의 투명망토는 3차원에서 렌즈 뒤 사물이 완전히 사라진다. 특히 이 망토는 빛을 굴절시키는 방식을 채택했으며,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보통렌즈를 사용했다는 점도 기존 기술과 차별화되는 측면이다. 로체스터대 존 하웰 교수는 “비용은 1,000달러를 조금 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만약 투명망토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자동차 차체 바깥을 투명하게 하여 후진 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항공기의 경우에도 이착륙 시에 항공기의 밑바닥을 투명하게 하여 직접 활주로의 상태를 확인한다면 훨씬 더 안전한 운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 및 수술 시에 내시경을 통하지 않고도 신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등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군사적 목적에서는 아군의 모습, 즉 보병을 비롯해 탱크, 장갑차 등을 철저히 숨겨서 상대방 적군에게 보이지 않게 한다면 전투가 벌어질 때 크게 유리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최근 ‘투명망토’는 향후 10년을 책임질 먹거리 산업 10선에 선정됐다. 이러한 미래기술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각은 다양하다. ‘획기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우리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가치나 윤리 문제들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초래할 영향을 다각도에서 평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다가올 미래 사회의 모습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내다봄으로써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정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관, 세상을 새롭게 열어가는 문이다

▲ 위기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다 ❶

우리의 삶 속에서 혁신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일까? 역사를 뒤져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던 때보다는 불안정하고 격동적이며 위기로 가득찬 시기에 혁신이 크게 일어났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가 바로 이런 시대의 산물이었다. 르네상스는 유럽사에서 약 14세기에서부터 16세기 사이에 일어난 문예부흥으로 대변되는 혁신기를 말한다. 예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번영의 토대가 만들어진 시대다. 도대체 왜 이 시기에 이탈리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까?

글_이홍 광운대학교 교수 · <창조습관> 저자

위기의 숨겨진 비밀 •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이탈리아는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정치적으로는 잘게 쪼개진 도시국가들 간의 잦은 분쟁으로 사회는 극도로 혼란했다. 혼란은 무질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필요도 증가시키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에 낙산, 헬리콥터, 기관총, 탱크와 같은 병기들이 등장하는 이유도 당시 도시국가들 간의 분쟁과 관련이 있다.

한편, 이런 혼란기를 틈타 이탈리아의 변방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십자군 원정 이후 이곳은 이슬람과 유럽을 잇는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부를 쌓게 됐다. 갑자기 부유해진 도시는 공예와 예술수요를 폭발시켰고 예술인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의 공방과 화실을 차리게 됐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예술인들 간의 무한 경쟁은 예술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했고 이것이 피렌체를 르네상스의 중심지로 만든 핵심 원인이 되었다.

전쟁이라는 사회적 혼란도 혁신을 가속화시킨다. 전쟁은 그야말로 사회가 초토화되는 악몽의 시대다. 그런데 역사는 우리가 아는 많은 혁신이 전쟁과 관련이 있음을 알려준다. 기계산업이 오늘날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차와 2차 세계대전에 등장한 탱크 때문이다. 전쟁 후 탱크를 만들던 지식과 기술이 민간으로 넘어오면서 기계산업은 크게 성장하게 된다. 2차 세계대전 말미 큰 위력을 보였던 로켓은 오늘날 우주를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변모했다. 당시

원자탄은 일본사회를 초토화하는 무기였지만 원자력은 이제 인류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부상했다. 오늘날의 인스턴트커피와 포테이토칩도 2차 세계대전 중 군인들에게 제공되던 것들이다.

실리콘 밸리의 탄생도 알고 보면 전쟁과 관련이 있다. 초기 실리콘 밸리에는 집적회로를 제작하는 기업들이 운집하게 되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냉전시대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로켓탄두를 유도하기 위한 부품연구를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에게 의뢰하면서부터다. 통조림은 나폴레옹이 안전한 전투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 • 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위기를 경험할 때 혁신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비유를 해보자. 사막의 모래 구름은 한번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바람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바람이 없다면 구름의 변화도 없다. 사회의 불안정은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전쟁이라는 바람은 전쟁에 이기기 위한 각종 장비나 제품들의 수요를 자극한다. 사회를 불안정하게 하는 바람은 사회의 모양을 바꿔가며 새로운 수요를 일으킨다. 사회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몸부림쳐서다.

현대사회는 어떨까? 요즘은 과거와 같은 사회변동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즈니스적 시각에서 보면 혼란의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현 시대를 격동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또는 위기의 시대로 부르는 이유다. 왜 이렇게 됐을까? 첫 번째 이유는 세계가 연결돼서다.

연결이 되면 한 사회에서의 변화가 다른 사회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전에는 미국의 유행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데에 수년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연결매체를 통해 다음 날이면 넘어온다. 이것은 바람이 되어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요동치게 만든다. 두 번째 이유는 여기에 동조하여 기업들의 경쟁강도가 세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명주기가 크게 줄어들었다. 수명주기가 줄어들면 불과 얼마 전에 사용하던 제품이나 서비스는 무용지물이 된다. 재빠르게 새로운 것을 제공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진다는 말이다.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때가 2007년도다. 그런데 이 제품이 7년도 안 돼 벌써 성숙기 제품으로 변모하고 있다. 저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의 샤오미라는 기업이 한국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을 위협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장이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는 포화기에 들어섰고 조만간 쇠퇴기로 갈 수 있다는 증거다. 이것은 또 다른 소통방식에 대한 요구를 사회가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기에 누가 활약을 해야 하는가? 바로 발명가다.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사회의 필요가 증가한다고 했다.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보면 현대사회는 어떤 사회보다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지금이 바로 발명가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이다. 위기(危機)라는 말은 한자로 위험하다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결합된 것이다.

위기는 기존의 안정적인 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소이지만, 새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기회를 준다는 말이다. 발명특허



A crisis is an opening for displaying capability



“글로벌 경쟁 심화... 특허와 지식재산 중요해”

▲ 위기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다 ❶

제17대 한국발명진흥회 신임회장에 구자열 LS그룹 회장 선임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쟁력이 눈에 보이는 물질 재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에 의해 파생되면서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각국의 노력이 이전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각 기업의 경쟁이 자국을 넘어 타국으로까지 활발해지면서, 국내 특허뿐 아니라 해외 특허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기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특허,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내 특허 산업을 이끄는 한국발명진흥회 제17대 신임회장 취임식이 진행됐다. 새롭게 취임한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전했다.



01



01 구자열 회장이 취임식에서 포부를 전하고 있다. 02 한국발명진흥회 제7대 구자열 회장의 취임 환영 및 꽃다발 증정식이 진행됐다. 03 취임식 후, 구자열 회장과 조은영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발명강국으로 성장하도록 · “최근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와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17대 한국발명진흥회 신임회장으로서,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가치를 증진시키고 관련분야의 인재를 양성해 한국이 발명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조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 역삼동에 소재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회의실에서는 한국발명진흥회 제17대 신임회장으로 선임된 구자열 LS그룹 회장의 취임식과 이사회가 진행됐다.

취임식에 앞서 조은영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이 의장으로 진행한 이사회에서는 회장 선임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의결 후 구자열 신임회장과 각 이사들은 서로 반가운 인사를 건네고 각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사회 이후, 국제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취임식을 진행했다. 구자열 신임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자열 회장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고, 미래성장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관련분야의 인재를 양성해 대한민국이 발명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구자열 회장은 지식재산이 국민 사이에서 보다 대중화되고 친숙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을 언급했다. 구자열 회장은 “개인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사업화와 거래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중소기업과 활발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구자열 회장, 평소 특허와 신기술에 관심 높아 · 구자열 회장은 평소에도 특허와 신기술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LS그룹 회장직을 맡으면서도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특허화 해 지식재산으로 보호할 것을 강조한다고 알려졌다. 현재 구자열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과학기술위원장, 국가과학기술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맡는 등 R&D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과학 프로그램에도 관심이 많아 이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인 과학 꿈나무 육성사업과 드림사이언스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관련 분야에 남다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평소 철학을 반영하듯, 그는 “발명이 특정 연구원들만의 소유물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 모두가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저변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 이후에는 지역지식재산부 손다운 주임이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직원들은 새롭게 선임된 구자열 회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발명특허

창의적인 발상과 아이디어로 풍요로운 발명을 꿈꾸다

▲ 위기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다 ②

2014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발명을 신사업으로 연결시켜 발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11월 28일 열린 '2014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에서도 우리나라 지식재산을 살찌울 우수 발명품들이 전시됐다. 더불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대만과 러시아를 비롯해 34개국이 참가하여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명실상부한 국제발명전으로 성장한 한해였다. 어떤 해보다 출품작품수가 많았던 '2014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과 우수상표권공모전'은 질적으로도 큰 성과를 이룬 발명인들의 축제였다.



- 01 한국발명진흥회와 특허청은 지난 11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4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상표·디자인권전'을 통합한 '2014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을 개최했다. 주요 인사들이 개막식에 앞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 02 영국전자 부스에서 구자열 한국발명진흥회장,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파노라믹 자동추적 카메라를 비롯한 전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우수발명품 관람으로 축제 문 열어 ·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2014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은 이른 아침 코엑스를 뜨겁게 달궜다. 과학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단체관람객이 붐빈 행사장 입구는 길게 늘어선 줄로 활기가 넘쳤다. 전시장 열기는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과 전시회장 관람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부스는 특허청에서 비정상화 과제와 관련된 내용이였다. 상표등록법을 자세히 모르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상표브로커 근절정책과 위조상품단속, 위조 변조 방지 기술을 설명해주었다.

주요 전시 관람은 한국발명진흥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특허청장과 대안발명협회장 등과 함께 했다. 우수 발명품으로 선정된 부스에서는 발명특징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영국전자는 지능형 CCTV를 선보였다. 파노라마로 영상을 보여주는 CCTV 카메라였으며 최대 10개 피사체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 한 화면 안에 전체 영상과 집중, 자동, 추적 영상을 동시에 잡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치 사람이 직접 눈으로 감시 하는듯한 효과를 내는 CCTV 카메라였다. 영국전자는 "이 시스템을 별도로 컴퓨터에 두지 않고 카메라 안에 시스템화했다"며, "때문에 제품의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기존대비 제품 경제성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손가락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도어인 '아이도어'를 고안한 ㈜제오메이드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전체 가정 안전사고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손가락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문틈을 없앴습니다. 문을 연결하는 경첩을 없애고 문을 열 때 생기는 L자 홈을 열려진 문쪽으로 문틈을 메우는 방법입니다." (주)제오메이드는 새로 시행되는 건축법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이다.

우수전시관람 후, 시상식장으로 이동했다. 시상식 내빈으로는 특허청장과 한국발명진흥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발명유관단체기관장, 크로아티아 기업가 및 기술부 장관, 태국국립연구협의회 사무총장, 러시아국제과학기술협의회 부총장, 대안발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아이디어와 콘텐츠, 혁신적인 기술이 지식재산 • 2014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과 상표·디자인권전 시상식을 알리는 박수와 함께 한국발명진흥회 구자열 회장이 개막사를 이어갔다.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은 우리나라 발명의 역사와 함께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33년 동안 우리는 매년 100여 점 내외의 우수한 발명품을 발굴하여 그 내용을 수상하고 격려해 왔습니다. 발명이 단순히 지식에 그치지 않고 발명가 여러분의 결실이 사후화가 될 수 있도록 구매상담의 장도 함께 마련해왔습니다. 대한민국지식재산대전을 거쳐간 다수의 발명가들이 사업화 과정을 통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발명가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열 회장은 그동안 이룬 우리나라 발명성과를 발명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공을 돌렸다.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발명인들에게 감사와 응원을 보내주었다.

“오늘 함께 자리한 이곳은 지난 1년간 최고의 발명과 상표를 뽑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우리에게 아직 꿈과 비전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때로 열정으로는 세계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남을 돕는 유일한 나라로 발전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미래로 새롭게 나아갈 방법은 창조적 도전정신입니다. 21세기는 완전한 사람을 좇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도전하고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창의와 혁신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의 시대

입니다. 여러분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전국의 발명인과 기업인들의 창의적 도전정신에서 저는 두 번째 한강의 기적,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봅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희망입니다.”

개막사와 인사말씀이 끝난 뒤, 기념 영상이 상영됐다. 발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영상이었으며 '비웃음이여, 장애여, 사랑이여 고맙습니다'를 주제로 발명에 필요한 요소를 보여주었다.

창의적 주춧돌을 놓는 발명인들 점차 늘어 • 2014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는 총 96여 점의 발명품이 수상했다. 기업의 중요 자산인 우수 브랜드를 발굴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50여 점의 우수상표권 공모전 수상도 같이 이뤄졌다.

146명의 수상자들이 모두 상을 받은 뒤, 김영민 특허청장이 축사를 전했다. 그는 “행사 준비를 위해 힘써주신 구자열 회장께 감사드립니다. 예년보다 출품수가 많아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고 심사가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우수발명품 출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창의적 발명활동이 대한민국의 전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발명품이 다수 수상했습니다. 비로소 우리 발명이 안전한 대한민국에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업이 정신을 가진 사회적 발명가가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하여 우리나라가 창조경제를 이루고 국민행복시대를 열도록 노력합시다”며 시상식을 마무리했다. 발명특이



03 구자열 한국발명진흥회장이 개막사를 하고 있다. **04**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디자인 분야 특허제품들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05. 06** 우수 발명품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진 후, 구자열 한국발명진흥회장(오른쪽 네 번째)이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 걸음

▲ 위기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다 ❷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시상식 개최

2014년을 빛낸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 최우수 공공서비스 시상식은 매일경제에서 오랫동안 공을 들인 행사이다. '진심어린 서비스' 하나로 뭉친 공공기관들의 사례를 찾아내어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자함이었다. 7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진행된 행사는 참가신청을 거쳐 선정과 심사를 하였고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할 만큼 심혈을 기울인 기획이다. 40여 년 발명 역사를 가진 한국발명진흥회도 최우수 공공서비스 기관으로 선정되어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려 깊은 공공서비스를 알리고자 • 지난 11월 13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12층 대강당에서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시상식이 열렸다. 최우수 공공서비스 선정과 심사는 홍석우 선정위원장(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공공기관의 비전과 역량에 중점을 두어 공정하게 평가했다. 공공서비스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힘쓰는 서비스, 교육, 교통 등을 말한다.

수능시험일을 며칠 앞둔 시상일이어서 추위가 매서웠으나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은 축하열기로 훈훈했다. 선정분야는 공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교육서비스기관, 병원이며 총 5개 항목과 17개 평가지표로 심사되었다. 항목으로는 기관장의 전략과 철학과 선정부문별 비전제시, 공공서비스 대외 실적, 리더십 행사성과, 최고경영자의 전략적 브랜드가치로 구분했다.

국민의례 후, 매경미디어 그룹 박재현 상무가 수상자와 참석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올해로 시상식을 진행한지 32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안팎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어려운 시기에도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힘을 주춧돌 삼아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 혁신 정신으로 임한다면 대한민국의 공공서비스가 세계 수준으로 나날이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이어 최우수 공공서비스 수상기관에 대한 시상식 진행됐다. 홍석우 선정위원장과 박재현 상무는 한국발명진흥회를 비롯한 14개 기관에 상패를 직접 전달했다. 시상식 내내 끊이지 않던 박소소리는 축하음악이 되어 대강당을 채웠다.

상을 수상한 한국발명진흥회 조은영 부회장은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과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인재 양성, 고객과 동반성장 문화 구현 목표를 가지고 창의적 경제 실현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며, “지난 6월 30일, ‘중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40여 년간의 발자취가 담긴 ‘40년사 발간식’을 마련한 터라 소감이 남다르다”고 전했다.

서비스 성과는 우수사례 기록집으로 발간 • 이후 홍석우 선정위원장이 심사경과보고를 이어갔다.

“14개 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했습니다. 경영평가 뿐만 아니라 전문성, 핵심가치, 미래발전가능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선정된 최우수 공공기관의 서비스 성과는 우수사례 기록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읽도록 대한민국 곳곳에 모범사례로 나눌 계획입니다. 더불어 다른 기관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 함께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선정과 심사를 거친 사례와 경영전략은 8월 29일부터 10월 31일에 걸쳐 기록집으로 제작되었다. 현장 취재로 작성된 기록집은 전국 공공도서관 기증 및 서점 판매, 주요 정부기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시상 후, 수상자들은 기념촬영을 했다. 묵묵히 자기자리에서 일한 성과가 널리 알려지는 것이 여전히 쑥스러운 듯 보였다.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 맞춰 우리나라도 새로운 경쟁력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매경미디어 그룹 박재현 상무가 전한 시상식 인사말처럼 수상한 공공기관은 서비스 가치와 투자를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에게도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참모습과 브랜드 정보를 알릴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 **발명특허**

03



01 11월 13일 오후,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시상식에 참석한 한국발명진흥회 조은영 부회장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02 한국발명진흥회 조은영 부회장(좌)과 매경미디어그룹 박재현 상무(우) 03 2014 최우수 공공 부문 서비스 대상 상패와 우수사례집

‘위기’ 이후의 ‘기회’를 보기 위해

▲ 위기는 능력을 발휘할 기회다 ③

윤호일 극지연구소 선임연구본부장

남극(南極). 그야말로 지구의 가장 극한 지대다. 영하 60도를 넘나드는 혹한의 추위와 설빙,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폭풍설과 언제 발이 빠질지 모르는 크레바스(crevasse ·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 등 곳곳이 위기로 가득한 곳. 윤호일 본부장은 지난 20년 동안 남극을 오고가며 월동(越冬)대장으로 남극 연구대를 이끌었다. 눈앞에서 손과 발이 얼어붙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의 실체가 눈앞에 닥친 곳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살아남은 자. 그로부터 듣는 위기는 매우 현실적이었다.

남극에서 산다는 것은 ·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는 산악인 혹은 오지 여행자처럼 거대한 자연을 경험하기 위해 남극에 간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윤호일 극지연구소 선임연구본부장은 지난 20여 년 간 남극을 오가며 생활했기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은 종종 그를 연구원이 아닌 오지 탐험가로 인식하곤 한다.

윤호일 본부장은 해양학 석·박사 과정을 거쳐 해양연구원에서 종사한 연구원이다. 남극에 간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남극의 생태계 변화를 조사하고 기후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그 먼 곳으로 떠난 것이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곳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극지로 파견된 연구원들의 숙명이다. 그렇기 때문인지, 남극은 연구원과 엄격한 탐험대의 문화가 오묘하게 섞인 듯하다.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점도 없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파견된 연구원들은 ‘대장’, ‘부대장’ 등의 철저한 위계 속에서 남극 생활을 시작한다. 현장으로 조사를 떠날 경우 반드시 리더와 대원으로 팀을 구성해야 한다.

“남극에 가면 무조건 1년을 있어야 해요. 아무 곳에도 갈 수 없죠.

모든 것이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오해와 갈등이 이곳에서는 눈덩이처럼 불거지기도 합니다. 문명사회에서는 서로 잠깐 바람을 쐬고 오면 풀릴 일도 이곳에서는 거친 행동이 오고 가기도 하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서로 계속 봐야하는 환경이에요. 때문에 자기 통제가 매우 중요하죠.”



01.02 지난 20년 동안 해마다 남극을 오고 가며 극한의 리더십, 위기의 리더십을 몸으로 익힌 세종기지 전 월동대장 ‘윤호일 본부장’. 그는 ‘극한의 위기 속 리더십’은 책임과 갈등해결 그리고 희생정신이라고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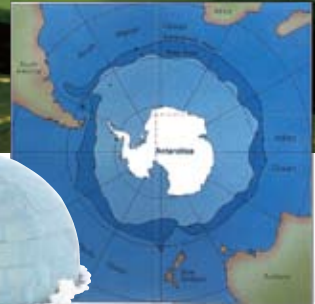
01



02



03. 04. 05 남극에서 지낼 당시 촬영한 사진. 남극은 최저 기온 영하 80℃ 2,000m 두께의 얼음에, 그나마 따뜻한 여름인 12월에서 2월의 기온은 무려 영하 11℃. 이렇듯 남극은 극한의 추위가 점령한 땅이다. **06** 극지에 대한 흥미를 갖기 위한 선결 조건은 지식 습득이 아니라 열정과 도전 정신이 돼야 한다.



극한 환경에서 맞닥뜨리는 위기란 • 거대한 환경의 위기 앞에서 사람은 하나로 뭉친다고 했던가. 윤호일 본부장은 남극에 있는 각국의 월동대원들은 문화와 국적은 다르지만 남다른 생명애(生命愛)를 나눈다고 말했다. 조난을 당하면 자신의 물도 서슴없이 나눠주는 등 서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그가 경험한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은 언제였을까. 윤호일 본부장은 2004년 부하 15명을 선발해 남극으로 연구생활을 떠난 이야기로 운을 뚫다.

“남극에 들어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실종사고를 겪게 됐어요. 13년 경력의 부대장이 부하 두 명과 함께 현장으로 조사 작업을 떠났는데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수심 1500 미터 바다에서 조난을 당한 거죠. 남극의 폭풍설은 정말 무섭습니다. 단 1미터 앞도 보이지 않아요. 기지에서 초조하게 무전에 대한 답신을 기다리는데 12시간이 지나도, 24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남극에서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는 48시간입니다.

그런데 48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군요. 결국 5명의 구조팀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7시간 동안 수색을 했어요. 하지만 날아오는 소식이라고는 무전기를 통해 들리는 ‘악’ 하는 비명 소리가 전부였습니다. 15명 중, 8명이 실종된 겁니다. 이미 실패한

조직이 된 거죠.”

남극에 도착하자마자 겪은 일이다. 이미 한국의 본부에서도 팀을 정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가장 먼저 조사를 떠난 팀이 인간의 한계로 여기는 48시간을 뛰어넘어, 52시간을 버티고 다시 기지로 돌아온 것이었다. 후에 구조를 위해 떠난 5명의 구조팀 역시 한 명을 제외한 네 명의 팀원이 돌아왔다. 기지에 모인 그들은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눈물을 흘렸다.

“죽어가던 조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때 실패한 조직을 살린 건 저 윤호일이라는 대장의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13년 경력의 부대장과 구조팀을 이끈 7년 경력의 팀장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들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대원들에게 막연한 기대를 품도록 하지 않았습다. 더 최악의 상황을 제시했어요. 부대장은 ‘남극의 폭풍설은 3일 이전에 그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대원들도 이 3일을 견디고 살아났다’며 대원들의 정신을 무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극의 폭풍설은 이틀이면 지나가요. 부대장은 대원들이 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여기에 하루를 더 추가한 거죠. 결국 중간 간부가 조직을 살린 겁니다.”

누구도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 • 윤호일 본부장은 “이처럼 위기는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다”며 “성실하고 투명하게 살아도, 매우 도덕적으로 살아도 위기에 직면하는 순간은 반드시 있다”고 이야기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공포를 어떻게 견디느냐는 것입니다. 남극에서도 조난이라는 위기에 빠지게 되면 죽음의 공포를 떨치기 위해 빨리 빠져나오려고 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위기에서 당장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죽게 돼 있어요. 위기는 자신이 떠나고 싶을 때 떠납니다. 때문에 조직과 개인이 위기에 직면하면 빠져나오는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그 위기를 그대로 직면하는 게 중요합니다. 똑바로 보고 받아들이야 해요. 위기를 인정할 때 그 상황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윤 본부장에게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에 그는 망설임 없이 “맞다”고 답했다. “단, 서로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위기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케 되려면 짜증을 낸다거나 서로에게 탓을 돌리면 안 됩니다.

희생정신과 균형감각, 그리고 정직성을 보여줘야 해요. 진정성이 있어야 모두가 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국 올바른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조직뿐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도 위기가 올 때 인생에 대한 리더십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타는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물론 부단히 노력하는 삶 속에 늘 위기가 도사리고 있지만 윤호일 본부장은 “그 어려움은 신이 각자에게 내려준 축복”이라며 “위기를 더 나은 기회로 만들면 된다. 또한 위기에 대응하는 연습은 젊었을 때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위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위기의 본질이 몸에 배야 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히 젊어서 많은 위기를 경험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어려움은 더 강한 나를 만들기 위한 신의 선물이에요. 젊은이들, 기업의 CEO, 혹은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발명가까지 모두가 위기의 본질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즐길 수 있어야 자신의 삶도 의미 있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발명특어**





IP FOCUS 01

가격경쟁의 해답은 ‘특허경영’이다



특허가 없어도 사업은 가능하다. 특허가 모든 산업분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예전부터 만들어오던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일회용 컵 또는 일회용밴드 등을 만드는 기업들은 이미 해당 발명품의 특허가 소멸된 지 오래일 것이기 때문에 특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과연 ‘특허를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행복한 상황일까?

특허가 없는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가격경쟁'이라는 큰 숙제가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일회용밴드를 10원에 납품하는데 경쟁사에서 7원에 납품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계약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그 경쟁사가 우리 회사에서 노하우를 갖고 닮은 사람이 새로 차린 회사라면, 기존의 영업망은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결국, 특허가 없는 영역에서의 경쟁은 결국 누가 더 밤을 많이 새우고, 누가 더 싸게 찍어낼 수 있는가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경쟁'의 상황에서 기존의 시장을 파괴하는 '특별한' 경쟁자가 등장하고 한다. 이들은 새로운 방식의 생산기법을 창조하여 생산가격을 절반으로 혁신하거나 새로운 이미지의 제품으로 더 높은 가격에 더 폭발적인 시장반응을 유도하기도 한다. 피쳐폰(feature phone) 시장에서의 절대강자였던 NOKIA를 멸망시킨건 2007년 이전까지는 휴대폰을 만들어보지 않았던 Apple의 iPhone이다. 이러한 '신 경쟁자'들은 항상 '특허'를 무기화하고 있다.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경쟁자들에 의해 '무단도용'되는 순간을 '보험사고'로 생각하여 '보험금'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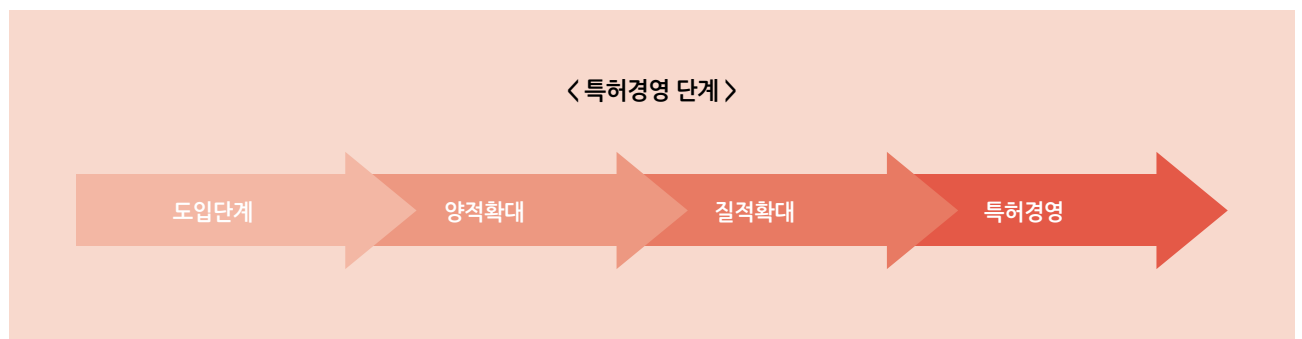
가격경쟁의 나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허경영 기업으로 발전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도록 한다.

도입단계: 중요한 것은 '발명문화' • 특허는 껍데기이고, 알맹이는 '발명'이다.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알맹이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아이디어가 신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포장하는 껍데기인 특허가 강력해야 우리 회사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나만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수한 발명을 발굴하는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특허경영을 강조해도 도루묵이 된다. 중소기업들은 '시간이 없음'을 핑계로 '발명'의 발굴과정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인사고에 반영하겠다는 경영진의 억압에 의해 탄생한 직원들의 수동적



아이디어들은 마구잡이로 출원되고 있다. 이는 잘못된 특허전술이며 특허제도에 대한 불신의 기초가 되어 결국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특허를 경시하게 만들고 또다시 가격경쟁의 늪으로 내모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이 '가격경쟁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사람이 세팅되어야 한다. 기존의 구성원 중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사람을 특허관리 겸임인력으로 선임해야 한다. 해당 인원에게 특허에 관한 공부를 시키고, 각종 세미나에 참여시키며,





특허경영의 노하우를 배워오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리고 특허관리자에게 연구원들을 인터뷰 시킴으로써 연구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는지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창의적인 문화를 원한다면 창의적인 업무를 하도록 누군가를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창의적인 활동을 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경영자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특허관리자는 특허전략에 관한 공부를 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스스로 경쟁사의 특허를 조사할 수 있도록 선행특허조사 방법을 교육해야 하며, 조사된 특허를 기초로 더 뛰어난 발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발명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특허경영의 1단계인 '도입단계'라고 한다.

양적확대: 무기의 확보 • 특허는 상대방 제품을 판매금지 시키는 산업계의 총알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총알은 많을수록 좋다. 물론, 총알을 생산할 자본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가슴을 관통할 수 있는 총알(핵심특허)을 1, 2개만 만드는 것을 원하겠지만, 그것은 LG나 삼성같은 대기업들도 정확히 수행하기 어려운 고도의 특허출원 전략이다. 비용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지만,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체 매출의 약 1% 이상을 특허

출원에 사용해야 한다.

Apple의 경우에도 2006년 무렵부터 특허출원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는데 당시에 출원한 특허들이 보호하고 있는 발명들이 수요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2011년에는 Apple의 강력한 특허포트폴리오로 성장했다.

특허는 기업의 미래수익을 위한 투자다.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은 결국 '아무런 대가없이 기술을 공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1단계를 통해 기업 내부에 창의적인 조직문화가 구축되었다면 이제 기업의 양질의 아이디어들을 대량으로 무기화해야 한다. 이를 특허경영전략에서 '양적확대' 단계라고 한다.

질적확대: 전략적 무기의 설계 •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렇게나 특허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모든 특허가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돈이 되는 특허는 '경쟁사가 사용하고 싶어 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특허를 통해 경쟁사들을 제압하고 싶다면 3~7년 후 시장에서 보편적인 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들을 전략적으로 권리화해야 한다. 지금 특허출원한 것이 바로 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로 정교한 목적을 쏘기 위해서는 1)우리

〈각 단계별 세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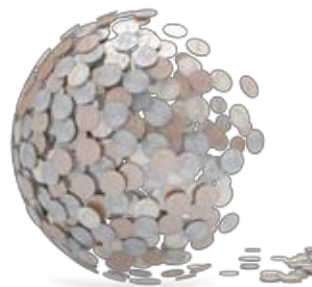
도입단계	양적확대	질적확대	특허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겸임인력 · 발명기법교육 · 특허 기초교육 · 선행조사 교육 - 대상: 연구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인력, 특허팀 · 발명신고서 의무 · 직무발명 보상금 · 특허 심화교육 - 연구원 기획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전담부서 - CIPO선정 · 특허분석 · 해외출원 강화 · 경쟁사 상시분석 · 특허맵 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선싱부 설치 - 협상전문가 육성 · 침해자 상시 분석 - 침해발견 보상 · 연구원들의 실시, 처분보상금 지급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top: 10px;">발명창출능력 강화</p>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top: 10px;">특허창출능력 강화</p>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top: 10px;">특허분석능력 강화</p>	<p style="font-weight: bold; margin-top: 10px;">시장장악능력 강화</p>

기술분야의 현재 트렌드를 분명히 파악하고, 2)현재 상황에서의 기술적 문제점이 무엇이며, 3)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구체화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3년 후 보편화될 기술을 발굴하고, 이 기술을 특허출원으로 '알박기' 하는 것이다.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해당 기술이 업계에서 보편성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해야한다. 국제적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발표한다든가 실제 구현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공개하는 등 우리 아이디어의 우수성을 증명해야 한다. 기술이 보편화되어야 해당 기술을 담고 있는 특허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다른 경쟁자들이 '사용하고 싶은 기술'이 되는 것이다. 이를 '기술마케팅'이라고 하며, 전략적 특허출원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략적 특허를 출원하고 해당 특허가 보호하고 있는 기술을 프로모션하는 과정을 특허경영전략에서는 '질적확대' 단계라고 한다.

특허경영 : 공격적 특허경영의 개시 · 특허는 무기다. 경쟁사의 제품이 우리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여 상대방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야 한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여 우리 회사를 위협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새로운 경쟁자를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 아무리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새로운 경쟁자의 새로운 제품을 사랑하게 되어버리면, 당신의 기업은 '구식' 이미지를 뒤집어쓴 채 시장에서 내리막을 걷게 된다. 따라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한 기업의 경우라면 단순한 특허관리팀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라이선싱팀을 별도로 설치하고 경쟁자들을 제압할 '전가의 보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양적·질적확대 단계에서 보유한 우리 회사의 특허들을 무기로 경쟁자들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새로운 경쟁자들의 기세를 꺾어아만 장기간 업계 최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선진 강소기업들의 '특허경영' 노하우인 것이다. **발명특허**



엄정한
 BLT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변리사



IP FOCUS 02

권리자에게 특히 과도한 노력을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특허, 상표, 디자인 침해소송의 특수성과 2인자 전략



획기적인 디자인으로 주방용품 분야에서 몇 개월 만에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있었다. 이 기업은 디자인 개발에 수익을 투자하였고 디자인 관련 상을 수회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를 모방한 제품이 6개월 만에 출시되었다며 필자를 찾아왔다. 이에 필자는 '디자인 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 시작과 동시에 합의로 종결됐다.

우선 디자인권을 가진 업체를 '선도 기업',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모방 기업'이라고 칭하자. 두 기업은 각자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많았다. 선도 기업은 "디자인 개발비에 수익을 들였는데 적은 노력으로 모방상품을 만들었다"며 강력한 배상을 청구하였고, 모방 기업은 "수많은 동종 상품이 비슷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각자 어느 정도의 유사성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불법이라고 하면 기업은 영업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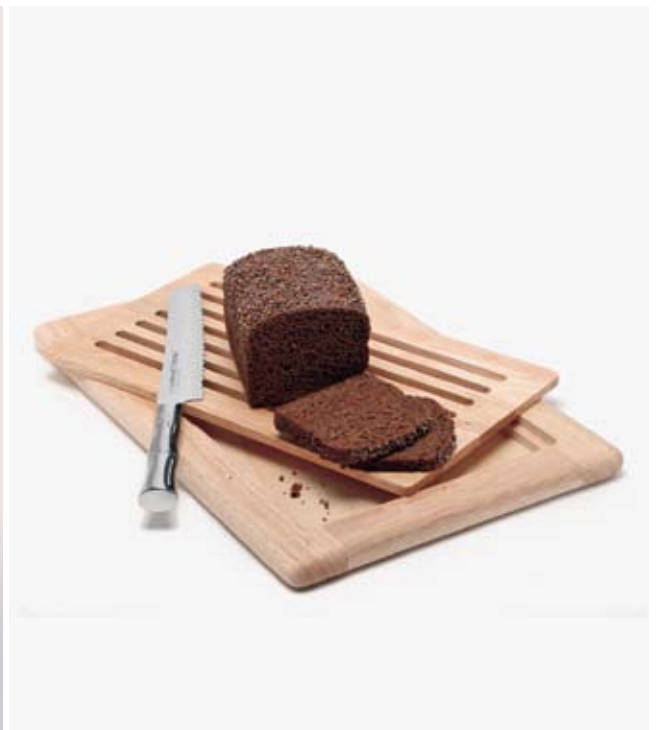
적은 수의 디자인만 존재하는 상품군에서는 디자인이 크게 다르더라도 침해로 판단해야 · 이러한 사건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판사의 재량이 많이 들어가므로 변호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편이다. 이 소송에서 상대방 변호사는 '동종의 유사 디자인이 많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20개의 동종 상품의 사진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한 사건의 핵심은 오히려 반대였다. 필자는 "단 20개밖에 제품이 없는 상품군에서는 유사의 범위를 넓게 보아야 한다"는 이론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디자인 침해라고 판단되려면 '비슷한 상품군'에서 비슷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했어야 한다. 따라서

디자인이 사용된 상품군의 성격에 따라서 침해판단은 달라져야만 한다는 이론이다.

일례로 휴대폰 케이스의 디자인은 수천가지이며 젓가락 손잡이의 디자인은 수만 가지에 이른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있는 상품군에서는 그 형태가 약간만 달라도 다른 디자인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단 20개 정도의 디자인만 존재하는 상품군에서는 디자인 선택의 폭이 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선택할 기회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유사한 형태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형태가 크게 다르더라도 유사 범위를 넓게 보아 디자인권 침해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극 주장했던 것이다.

이격적 관찰을 위한 기술설명회의 결과 · 판사는 디자인의 유사판단을 할 때 '이격적 관찰'을 해야한다. 이격적 관찰은, 어떤 날 선도기업의 제품을 본 후 그 다음날 다른 매장에서 모방기업의 제품을 보았을 때 두 제품을 같은 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본다는 말이다. 하지만 재판에서 두 제품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판사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자인 침해사건에서도 특허침해 사건에서와 같이 '기술설명회'라는 것을 하게 된다. 이때 변호사는





슬라이드쇼를 펼쳐가면서 판사로 하여금 이격적 관찰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격적 관찰을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동원된다. 동종 제품들 사이에 선도기업의 제품이 끼여 전시된 사진을 슬라이드 시작시 보여주고, 선도기업 제품만 모방기업의 것으로 바꾼 사진을 슬라이드의 끝에 배치하는 식이다. 이때 재판부가 두 제품이 동일 제품인 것이라고 오인한다면 절반의 성공이다.

이 사건은 필자의 논점과 노력을 인정받아 선도 기업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3억 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손해액은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필자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보강하여 "항소심을 계속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무려 1년 6개월이나 되는 긴 소송에 피로감을 느낀 원고 측은 상대방의 합의요청에 도장을 찍고야 말았다.

각종 법절차가 총동원되고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특허, 상표, 디자인 침해소송

특히, 상표, 디자인 침해소송의 다수가 합의로 종결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기술(디자인)을 이해해야만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검증을 나간다가나 기술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 일반 재판보다 두세 배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이렇게 특허침해소송은 통상 1년이 넘게 걸리며 그 기간 동안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침해에 대한 고소, 무고 등 민사, 형사, 특허에 대한 각종 법절차가 총동원되게 된다.

그러다가 재판의 분위기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타진해오고 지칠 대로 지친 권리자측은 적당히 합의를 하며, 동시에 침해자 측도 그물망처럼 펼친 공격을 일거에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이번 소송의 결과로 선도 기업은 1년 6개월 동안 피해 본 매출액의 일부만을 보전받게 되었고 모방 기업은 모방으로 얻은 이익을 일정 부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패스트 팔로어, 2인자 전략에 대하여

현실에서는 새롭게 시장을 개척한 기업이 모방전략을 취하는 후발 주자에 어이없이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2인자 전략은 새 시장을 개척하는 블루오션 전략에 대비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재빠른 추격자(fast follower)'가 성공하는 이유는 위에서 보았듯이 선도기업의 기술(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란 선도자인 퍼스트 무버(first mover)나 시대의 유행을 선도하는 자인 트렌드 세터(trend setter) 기업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놓으면, 이를 재빨리 벤치마킹해 1위 기업보다 더욱 개선된 제품을 싼 가격에 내놓는 자를 말한다.

즉 패스트 팔로어는 최초나 최고가 되려고 하기보다 재빠른 2인자





전략으로 출발하여 최강자의 자리를 노리는 것이다. 그래서 선도 기업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내 기술, 내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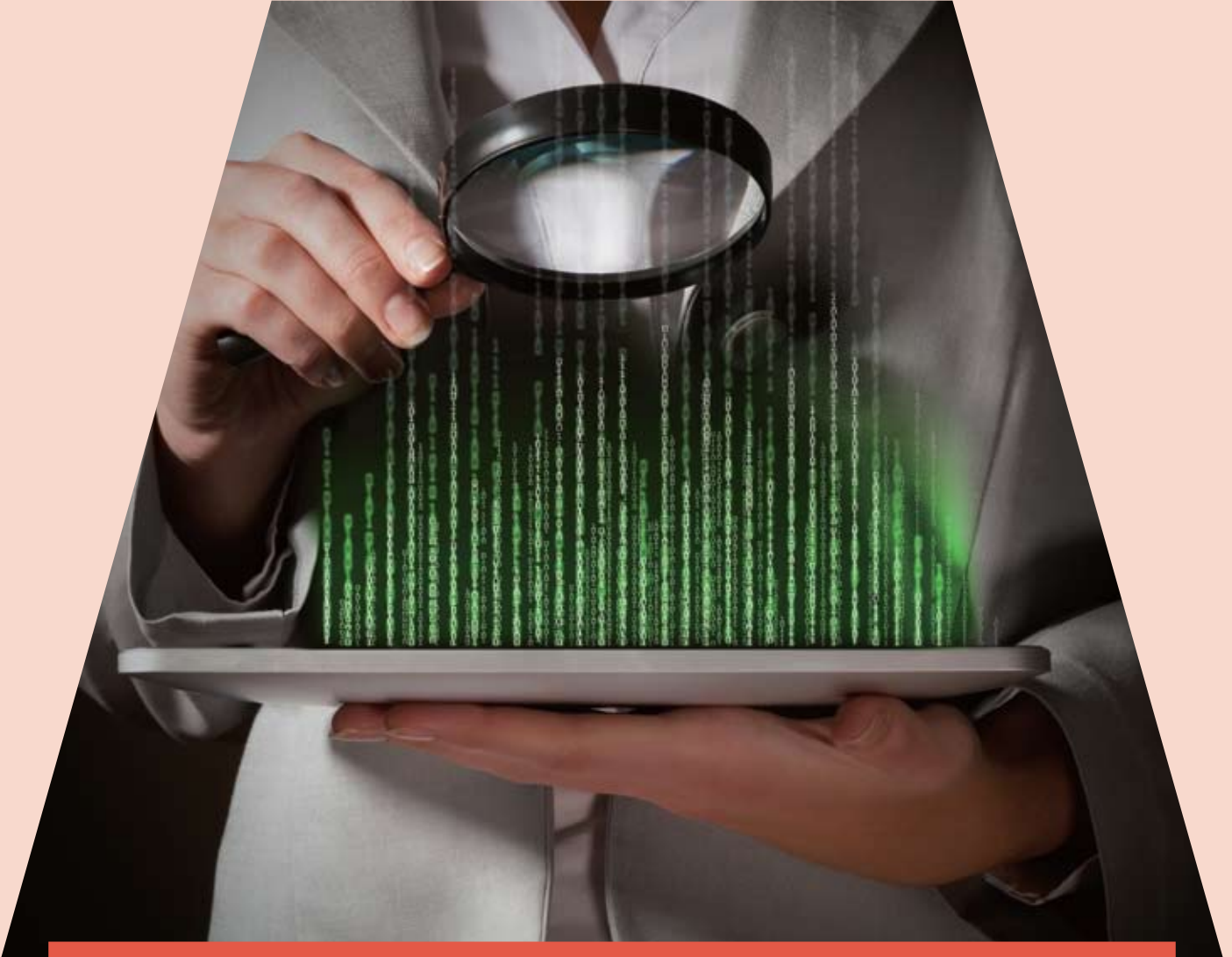
하지만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소송들은 위에서 보았듯이 그 침해 여부를 인정받는 데까지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고 기간도 길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선도 기업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법적 활용도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특허 및 디자인 침해 논란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이른다. 국내 기업의 디자인을 모방한 중국의 모방제품들도 그렇고, 삼성과 애플의 기나긴 소송도 그렇다. 해외에서의 특허침해소송도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으로 인해 합의를 하더라도 선도기업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실손해만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므로 지식재산권의 활발한 활용은 요원하 기만 하다.

기술개발에만 몰두하여도 모자랄 시간에 난해한 소송절차를 따라가느라 선도기업의 혁신은 뒷전이 되고 만다. 과도한 소송부담이 혁신이 혁신을 낳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일 수도 있다.

필자는 선도 기업들에게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법률대응 업무를 우리 같은 법무법인에 아웃소싱하고 혁신적 제품개발에 계속 몰두하라고 권유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지식재산권의 시대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발명특허**





IP FOCUS 03

‘지식재산권 심사품질 높이기’ 진단과 전망

심사관, 심판관 늘리고 예산증액, 인사숨통 터줄 대책 절실



‘튼튼한 지식재산권 생태계 만들기’, ‘특허심사 품질 높이기’, ‘강한 특허를 위한 적정권리범위 갖추기’, ‘심사·심판관 업무분담 조정’, ‘지식재산 행정한류 및 국제경쟁력 확산’. 특허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특허행정업무의 키워드다. 특히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품질 높이는 당면과제이자 중요 화두다.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해선 튼튼한 지식재산권 생태계가 필요하고, 지식재산권 생태계를 튼실하게 하려면 질 높은 심사가 필수란 시각에서다. 이는 지난해 3월 중순 취임한 김영민 특허청장이 중점을 두고 펼치는 정책이기도 하다.

심사속도는 최상위권, 심사품질은 바닥수준 • 지식재산권 선진 5개국(IP5, 미국·유럽공동체·한국·일본·중국)의 한 곳인 우리나라가 특허 등의 심사속도에선 최상위권이지만 심사품질은 바닥수준에 머물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소리가 높다. 지식재산 출원건수가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했음에도 품질향상 속도는 거북이 걸음이다.

세계 특허업계에서 권위 있는 저널인 영국 IAM(Intellectual Asset Management)에 실린 주요 나라들의 특허심사품질 관련기사가 눈길을 끈다. IAM은 얼마 전 우리나라 특허심사 품질수준이 유럽, 일본, 미국 다음으로 IP5 가운데 중국과 함께 맨 아래라고 보도했다. IAM이 평가한 주요 항목은 심사관들이 내준 특허권이 심결을 통해 무효 처리된 율을 나타내는 '특허무효비율'이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특허무효비율은 52.1%로 일본(29.3%)보다 너무 높다. 그만큼 심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특허심사 품질과 관련된 쓴 소리는 올해 국정감사장에서도 나왔다. "특허심사 잘못이 '100건 중 1건' 꼴로 생긴다"(박완주 의원), "특허·실용신안 심사품질 '대체로 불만족'하다"(추미애 의원)는 등의 지적이 그것이다.

출원건수 증가에도 심사관은 턱없이 부족 •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심사관이 처리해야 하는 출원건수가 너무 많아 질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출원건수는 자꾸 쌓이는데 심사할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생기는 현상이다. 우리나라 심사관의 업무량은 미국 등 IP5 주요 회원국들보다 3~5배 많다. 그럼에도 지재권출원 1건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88시간으로 유럽(42.6시간), 중국(37시간), 미국(27.8시간), 일본(12.6시간)보다 짧다. 할당되는 기술 분류항목도 87개로 유럽(18개), 미국(9개), 일본(41개)보다 훨씬 많다. 심사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계 최고 지식재산 강국인 미국은 연방공무원 수를 2011년 213만 289명에서 2012년 211만 221명으로 줄였지만 같은 기간 특허청 심사관은 6,685명에서 7,831명으로 늘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특허심사관이 20만 1,339건에서 21만 5,557건으로 불었음에도 같은 기간 심사관 수는 813명에서 812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 이후 100여명이 늘어 지금은 약 1,000명에 이른다.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내용부실도 특허심사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특허청 심사관들은 이들이 만든 보고서를 바탕으로 특허심사를 하므로 알찬 선행기술조사는 필수다. 선행기술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심사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의원(새누리당)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질이 높지 않아 특허심사에 참고하는 비율이 해마다 떨어진다든 게 이를 말해준다.

최근 4년간(2010~2013년)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활용률은 2010년 95%, 2011년 94.7%, 2012년 93.8%, 2013년 93.1%로 갈수록 내리막이다. 이렇다 보니 특허청 심사관들의 지식재산권 심사 때 활용률이 떨어지고, 심사품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해마다 수의계약으로 선행기술조사용역사업을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에 맡기고 있다. 이들은 해마다 8만~9만여 건 중 약 7만 건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만들어 특허청에 제공하고 있다.

특허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지면 특허분쟁 때 무효화로 이어져 국내 기업들이 받을 불이익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더 크게는 나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고 부실한 특허가 등록돼 사회·경제적 비용도 늘어난다. 불량발명품이 생기고 개발된 기술에도 흡입이 드러난다. 결국엔 지식재산권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존중 받지 못하고 뿌리내리기도 어렵다.

이런 가운데 특허심사관들의 위상과 사기마저 갈수록 떨어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4급(서기관)이상으로 출발했던 심사관 직급이 1961년 5급(사무관)이상으로, 지금은 6급(주무관)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낮아졌다. 지난해까지 심사관보로 심사관 업무를 도왔던 주무관들이 올해부터는 독립된 심사업무를 보는 실정이다. 일손이 달리는 특허청의 교육정책에서 빚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예전 같으면 4~5급으로 특별채용 됐던 박사나 변호사, 변리사는 이제 6급으로 지원해야만 한다. 자격은 같은데 심사관 직급이 낮춰진 셈이다. 심사관, 심판관들 능력과 전문성은 세계 정상급이나 예전의 위상을 찾아볼 수 없다. “특허청 조직의 허리역할을 하는 심사관의 대외이미지와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 다른 부처와 달리 심사관(사무관)들 인사적체가 심해 4급 승진은 아주 힘들다. 실력 있는 심사관들은 대학이나 연구원, 민간기업 등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

특허심사 국제경쟁력 및 품질 높이기 ‘탄력’ •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심사의 국제경쟁력과 품질 높이기엔 탄력을 붙이고 있다. 지난해 9월 특허청 창설 36년 만에 심사조직을 융·복합형으로 고치고 특허심사정책을 기간 줄이기 위주에서 품질 높이기 쪽으로 바꾸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기간은 그대로 이어가되 기술의 융·복합화 흐름에 따르고 심사전문성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심사과에 해당산업과 연관된 440여 단위기술(TC)들이 그룹화 되도록 한 게 그런 배경이다.

특허청이 조직개편에 따른 허점이 없도록 ‘특허심사기획위원회’를 분기별로 열고 심사관 업무량도 공정하게 배정되도록 전담작업팀(TF)을 6개월째 운영 중이다.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와 디자인은 명세서

작성, 기술적 심사·분석 등 업무량이 다르므로 분야별 가중치(점수화)를 뒤 심사건수가 알맞게 배정되도록 해 심사효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는 특허청에서 ‘판도라 상자’로 불렸던 심사평가기준을 업무분야와 특성에 맞도록 손질해 심사효율을 피하고 심사관들의 불만을 없애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출원인과 소통·협력해 적정권리를 만들어가는 ‘포지티브 형태’로 심사업무의 틀도 바뀌어가고 있다. ‘포지티브 형태’란 본 심사 전 예비심사, 보정방향 제시, 면담 등 수요자중심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올 들어 특허, 실용신안 포지티브심사에 따른 예비심사신청은 9월까지 33건, 보정방향 제시는 6월까지 1,739건(전체 발송건수의 11.5%)에 이른다. 아울러 특허청은 심사보고서 손질, 선행기술검색가이드 작성, 심사품질관리지표 활용, 협의심사 개선 등 품질관리 강화방안도 만들어 심사품질을 높여가고 있다.

문제는 부족한 심사인력이다. 특허청의 고민들 중 으뜸순위로 특허 심사인력 증원이다. 특허청은 올 3월 심사인력을 늘려주도록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국가 특허심사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2015~2017년 중 315명을 늘려 심사품질을 높이고 심사 기간도 내년까지 10개월로 줄이겠다는 게 뼈대다.

2015년도 특허심사에 필요한 6급 25명(시간선택제공무원 5명 포함)이 늘고 전문임기제공무원 102명의 임기연장은 확정됐다. 특허청은 전문임기제공무원 20여명을 늘려주도록 요청해놓고 있다. 게다가 심사를 돕는 선행기술조사업무를 바깥에 맡겨 심사관의 처리건수를 알맞게 조절할 예정이다. 내년도 심사지원 사업비 587억 원을 예산안에 넣고 2017년까지 특허, 실용신안 선행기술조사 외주비율도 70%까지 올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도 심사처리기간이 특허는 올보다 1.7개월 줄어 10개월 안에, 상표·디자인은 1.5개월 줄어 5개월 안에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게 특허청의 전망이다. 특허청은 심사관을 늘리면 한 사람당 업무량이 줄어 출원인의 특허 등을 적극 보호해주는 '포지티브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관이 맡는 기술범위가 좁아져 전문적인 심사가 이뤄지며 '강한 특허'를 등록,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는 물론 특허분쟁도 막아 안정된 기업경영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심사를 강화하면 지재권 소송이 줄고 소송합의금 등으로 수익을 챙기는 특허괴물(NPE)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좋은 사례다. 미국 법률정보제공업체 렉스머시나에 따르면 올 9월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특허소송건수는 3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줄었다. 올 4월엔

사상 최대건수가 접수됐으나 5월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송접수가 크게 줄었다.

특허청은 유일한 중앙 책임운영기관으로 인건비 등 소요경비 모두를 지식재산권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 당면과제인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심사인력과 예산을 과감히 늘려야한다. 심사관들의 위상과 사기를 높여주고 일거리도 덜어주는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때다. 시기를 놓치면 창조경제의 바탕이 되는 '튼튼한 지식재산권 생태계' 만들기는 물거품이 된다. **발명특허**





IP FOCUS 04

해외 게임의 국내진출과 지식재산권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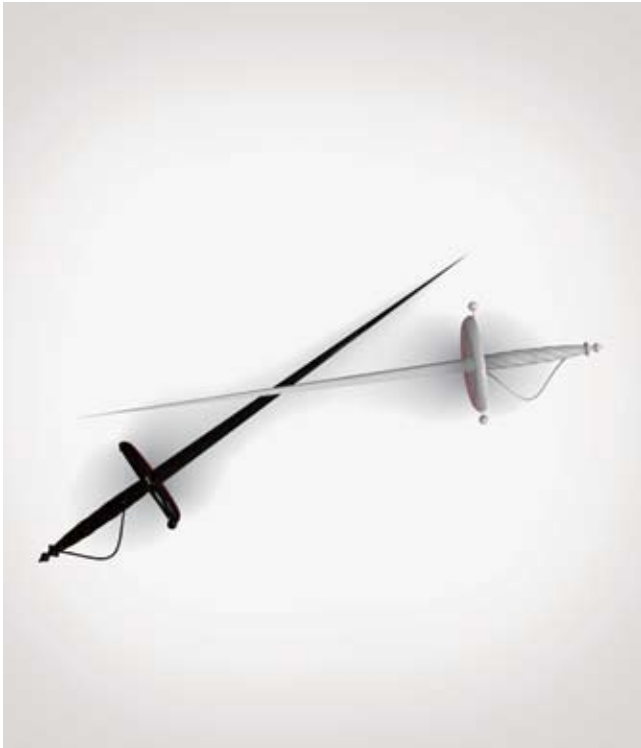
게임업계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파티게임즈, 데브시스터즈 등 모바일 게임 서비스 실적만으로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도 종종 보인다. 이러한 국내 게임시장을 노리고 국내에 진출하는 해외 게임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 게임이 국내에서 서비스됨에 따라 저작권 등의 침해로 한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게임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최근 Candy Crush Saga 게임 개발사로 유명한 영국의 킹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이하 'King')가 한국의 게임 개발사인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King은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의 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가 킹이 개발한 게임인 Farm Heroes Saga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맵 및 노드, 특정 보드 레이아웃, 특수 타일 및 특수 효과 등을 유사하게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 금지 등의 청구를 한 것이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한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이 당해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용했어야 하며 침해자의 저작물이 당해 저작물과 동일성 내지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 모바일 또는 온라인 게임은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게임의 구성요소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또 해당 게임의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라 할 것이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어야 한다. 즉,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게임화 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만약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다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결국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등이 게임 저작물의 내재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그 자체 또는 그러한 것들의 선택과 배열 그 자체가 무한히 많은 표현형태 중에서 저작자의 개성을 드러내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게임의 구성요소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방법(외관이론), 게임의 구성 요소를 각각의 요소로 분리하여 대응하여 판단하는 방법(분해식 접근방법)이 있다. 그러나 위 기준 모두 불확정 개념이므로 결국 사안마다 구체적 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게임 저작권 판례 변화의 가능성 • 그간 게임 저작권과 관련된 국내 소송 사례로는 '비엔비와 봄버맨' 사건, '건바운드와 포트리스2블루' 사건, '신야구와 '실황파워풀프로야구' 사건 등이 있었다. 법원은 '비엔비와 봄버맨' 사건에서는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 데 저작자의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 '건바운드와 포트리스2블루' 사건에서는 게임의 중요요소들이 예전 게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표현되었던 점으로 볼 때 상당 부분이 이전에 제작된 게임에서 사용된 요소들을 반영하여 제작되었다는 점, '신야구와 '실황파워풀프로야구' 사건 해당 게임의 구체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점 등을 주된 논거로 들며 저작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법원의 위와 같은 입장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게임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해외에서 'Tetris v. Xio' 사건, 'King v. 6Wave' 사건 등 게임 저작권의 침해를 인정할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은 Tetris v. Xio 사건에서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을 쌓아 올려 점수를 얻는 Tetris라는 게임의 구조는 아이디어에 해당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지만 Tetris 조각의 스타일, 디자인, 모양, 움직임은 Tetris라는 게임의 아이디어, 룰, 기능에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고, 또한 Tetris 블록이 떨어져 쌓이는 판의 크기, 그림자 블록, 다음에 떨어질 블록의 표시 등도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독창적 표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Xio사는 Mino를 개발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위의 요소들을 그대로 모방하였고, Mino와 Tetris의 전체적인 외관과 분위기도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이유로 Xio사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Tetris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독창성, 창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판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King v. 6Wave 사건에서 6Wave의 Farm Epic, Treasure Epic라는 게임이 King의 Farm Heroes Saga, Pet Rescue Sag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6Wave는 Farm Epic 및 Treasure Epic의 배포를 중단하고, King에게 해당 게임으로 얻은 수익 및 King의 법률 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된 조정안을 선고했다. 조정으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앞서 Tetris 사례와 달리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언급되지 아니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Farm Heroes Saga 및 Pet Rescue Sage는 3개의 블록을 맞추어 진행하는 Match-3 Puzzle Game인데, 예전부터 개발되어 있던 방식의 게임에 일부 요소만 추가시켰음에도 게임 구성 요소의 독창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ing도 위와 같은



소송 결과에 고무되어 국내에서 아보카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위 소송의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법원이 게임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는 해외 판례들의 견해를 참고하여 입장을 변경할 수도 있다. 다만 만약 법원이 King의 손을 들어줄 경우 게임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유사한 소송이 상당수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게임 개발사는 게임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해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게임 저작권 분쟁, 사전에 대비해야 • 이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게임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획중인 게임과 유사한 게임이 존재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기획중인 게임이 유사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 개발에 착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개발이 완료된 게임이라 하더라도 게임 저작권 관련 전문가의 검토 후 출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게임 저작권 소송을 당하였을 경우 상대방 게임의 각종 설정, 전개방식과 규칙 등을 전체로서 배열하고 선택하는 데 다양한 표현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 중요 요소들이 예전 게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표현되었던 점으로 볼 때 상당 부분이 이전에 제작된 게임

에서 사용된 요소들을 반영하여 제작되었다는 점, 해당 게임의 구체적인 표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이를 방어할 수 있다.

게임은 구성 요소의 창의성 및 독창성을 기반으로 유저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것이 본질이다. 게임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더욱 재미있는 게임이 개발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와 같은 게임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한 게임 시장의 미래는 앞으로도 매우 밝을 것이라 생각한다. **발명특허**



따뜻한 마음 듬뿍 담아 맛있게 버무리다



KIPA 사랑의 김장 나눔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김장철. 겨우내 먹을 반식량 작업을 코앞에 둔 주부들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대식구가 먹을 수백 포기의 김장을 해야 하는 이들에겐 연례행사나 다름없다. 차디찬 겨울의 문턱, 먹을 것, 입을 것, 딸 것의 걱정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KIPA 봉사단이 발 벗고 나섰다. 서툰 솜씨지만 작은 힘이나마 모으기로 한 것. 양평 '천사의 집'에서 펼쳐진 사랑과 나눔의 현장에는 온기가 가득했다.





KIPA 봉사단은
연말연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데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나눔 온도'를 높여요! • 지난 11월 20일, 한국 발명진흥회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양평 '천사의 집'에서 김장 나눔 봉사가 진행했다.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 김장봉사에는 조은영 부회장과 정우영 경영 기획본부장, 백인홍 사업지원본부장을 비롯한 총 스물다섯 명의 봉사단이 참석해 뜻을 같이 했다.

천사의 집에 모두 모인 시각은 오전 9시. 이른 아침부터 출발한 탓에 늦지 않게 목적지에 도착했다. 평소와 달리 편한 옷차림에 운동화를 신은 모습들이 어쩐지 조금은 낯설지만, 기분 좋은 새로움이었다. 본격적인 김장을 앞두고, 붉은 단체복으로 무장한 봉사단은 의욕과 열정이 넘쳤다. 위생도 철저히 챙겼다. 김장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운 것.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과 고무장화를 장착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곧장 재료 준비에 들어갔다. 절임 배추의 소금 물을 빼내는 것에서부터 김장에 필요한 각종 재료를 씻는 일도 봉사단의 몫이다. 이어서 양념 만들기가 시작됐다. 너른 평상 위에 커다란 비닐이 깔리고, 무채와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액젓 등 갖가지 양념들이 듬뿍 쌓여간다. “자~ 고춧가루 투척합니다~” 오늘 담글 김치가 무려 500 포기니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양념 소를 버무리기 전, 나기성 과장이 몸소 시범을 보였다. “자자~ 이제 진짜 시작해봅시다. 무채나 다른 재료들이 풀이 죽으면 안 되니까 너무 힘줘서 하지 말고, 살살 위아래로 잘 섞어주세요” 그 순간 빨간 고무장갑들이 양념을 향해 돌진. 그렇게 몇 분을 양념 만들기에 집중했다. 양이 워낙 많아서인지, 추운 날씨인데도 봉사단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한 쪽에서는 수육을 삶느라 분주했다.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엄나무, 양파, 생강 등 고기 잡내를 없애기 위해 갖가지 재료들을 집어넣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김, 그리고 타닥타닥 타는 나무냄새가 정경기만 하다.

아삭아삭, 김치 맛 좀 보실래요? • 자원봉사단 대부분이 김치를 처음 담가보는 초보자들인지라 한국발명진흥회의 주부9단 선수들이 김치특강을 시작했다. “자, 잘들 보세요!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양념을 바르고, 남은 그 나머지 양념으로 쓱쓱 비벼주세요! 쉽죠? 너무 짜거나 싱겁지 않게 꼼꼼히 잘 버무리야 되요.” 몇몇 봉사단들은 그새를 참지 못하고 막 버무린 빨간 김장김치를 입에 썩 넣었다. 백인홍 사업지원본부장은 “우리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라 즐겁다. 오늘 우리가 담근 김장김치가 천사의 집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뒷받침한다니 더 정성을 들여 만들게 된다”며 웃었다. 하나하나 정성들여 배추 속을 쌓는 KIPA 봉사단. 조금 낮은 작업대 덕분에 여기저기서 “아이구, 아이구” 소리가 절로 나지만 모두들 함께 나누는 즐거운 수다에 힘든 것도 잊어버린다. 그렇게 웃고 또 웃고, 어느새 그 많던 배추들이 모두 버무러졌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돌아왔다. 밥상에는 방금 막 담근 김장김치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수육, 그리고 걸쭉한 막걸리가 빠지지 않고 올라왔다. “막걸리가 빠졌으면 서운할 뻔 했네. 김치랑 수육 맛이 일품이다 일품!” 그렇게 맛있는 한 끼 식사 후, 뒷정리까지 모두 끝내고서야 김장 나눔 봉사는 마무리 됐다.





오늘 담은 김장김치는 총 500포기. 천사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오늘 담은 김치는 맛있는 선물이 되었다. 모두의 마음이 담긴 기부금과 과일 등도 함께 전달됐다.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기쁜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우리회 봉사단원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전한다”며,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도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발명특이**

함께한 사람들

조은영 부회장, 정우영 경영기획본부장, 백인홍 사업지원본부장, 이두성 총무부장, 한국지식재산증개소 한진환 과장, 한국지식재산평가센터 오국진 계장, 양태욱 주임, 박인재 선임연구원, 김주호 주임, 김상범 전문위원, 광정애 전문위원, 양병한 전문위원, 박재원 전문위원, 국제사업부 배재욱 과장, 임지나 계장,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진병욱 전문위원, 이형은 전문위원, 총무부 박은영 과장, 나기성 과장, 강은구 계장, 신광식 선임기사, 김정록 사원, 이선영, 강민정, 지식재산사업부 윤상미 청년인턴, 김동하 청년인턴





‘가능성의 발견’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열다

Interviewee. 서울지식재산센터 박진기 센터장

세계 경제가 지식기반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식재산을 비롯한 기업이 소유한 무형자산이 오늘날 기업가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하여 지식재산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는 소통으로 미래 성장엔진을 발굴해가고 있는 서울지식재산센터를 소개합니다.

Q 서울지식재산센터(이하 서울센터)에 대해 간단한 소개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센터에서는 서울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상승 기반을 마련하고자 설립됐습니다. 2009년 특허청과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특허, 브랜드,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고품질의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의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식재산도시, 서울」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식재산 서비스에 대한 수요 계층의 확대 지원을 목표로 저를 비롯해 백상렬, 최동열 특허컨설턴트, 김현철 브랜드컨설턴트, 장성훈 지식컨설턴트, 안희환, 이가영 컨설턴트, 전철오, 최원주 변리사 등 총 9명이 담당업무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습니다.

Q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서울지역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서울센터는 서울시 중소기업과 서울시민에게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나 심판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변리사 비용까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서울시민의 지식재산경영과 관련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센터에서 다루는 사건은 비단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영업비밀 등도 포함하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관련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 및 10인 미만의 소기업, 사회적 배려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역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조기안착을 위해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등의 별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울러 IP멘토단을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외에 회계, 법률, 시장 분석, 기술 시뮬레이션 등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One-Point 컨설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부대 사업을 연계지원하고 있습니다.



Q 센터 내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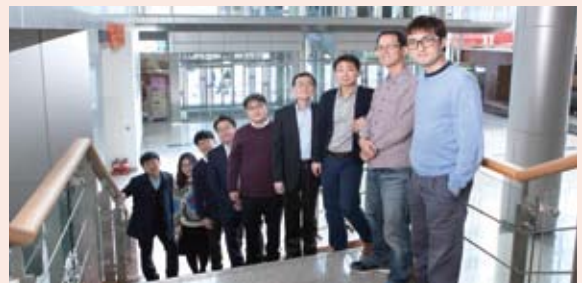
저희 센터는 인정이 넘치고 화목한 센터입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로 작은 일에도 솔선수범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직원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창의체험의 날(Creation Day)'을 운영하여 업무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즐거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 소모임을 운영하여 경험공유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의 유대 강화와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호응도 역시 대단히 높습니다.

Q 서울지역에 있는 타 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도 하는지요.

물론입니다. 저희 센터는 서울산업진흥원(SBA) 소속 산하기관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서울형 R&D 지원,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산업 지원, 중소기업 국내외 마케팅 지원, 청년창업센터 운영, 중소기업 보육센터 운영, 애니메이션 산업 지원, 서울시 중소기업 교육사업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부 기관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저희 센터의 컨설팅을 받아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의 경우, 서울형 R&D 지원 사업 중 이전기술상품화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이에 대한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마케팅 사업의 지원을 받는 식으로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외부기관과도 여러 사업에서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저희 센터 사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외부 기관은 저희가 가진 서울시 중소기업 POOL을 이용해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Q 서울센터는 서울시민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취지에서 개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민 발명아이디어 공모전’은 서울시민의 생활 속 발명을 활성화하는 한편, 특허청과 연계하여 우수발명에 대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201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었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상작들에 대해 시제품 제작지원, 창업공간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실제 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상작들에 대한 3D시뮬레이션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수상자들이 향후 자신의 발명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행사의 기획에서부터 홍보, 접수, 심사, 선행기술조사 및 시민 평가 행사개최 등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우수발명의 사업화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즐겁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민 발명 아이디어 공모전’이 시민발명가들께서 꿈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이 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서울센터는 시민들이 언제나 궁금증을 문의할 수 있도록 서울센터 내에 온라인 당직 변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서울센터에서는 상담을 원하는 시민과 기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상담업무시간을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센터 상담 업무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올 한해 작년과 차별화된 부분 또는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서울시에서는 ‘생활 속의 작은 혁명, 발명 활성화’를 비전으로 ‘지식재산도시, 서울’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센터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강화’, ‘서울시민 발명 생활화’, ‘지식재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란 과제를 갖고 올 한해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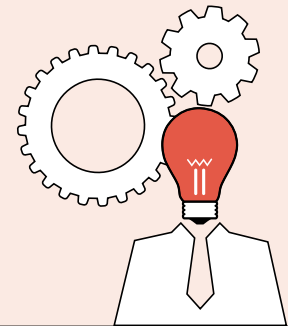


서울시민에게 분야별 내·외부 연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협력기관의 활용 및 MOU를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대한변리사회, Intellectual Discovery, 저작물 관리위원회, 한국여성발명협회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등과 함께 지원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및 지식재산 멘토단과 연계한 지식재산 맞춤형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서울기업의 지식재산 현황을 진단하고, 최적의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및 보육센터 등 지식재산에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식재산 컨설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의 기본요건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 지식재산의 구체화 및 침해예방 및 분쟁대응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향후, G-밸리, 성수 수제화 타운, 동대문의 디자인 관련 취약기업 대상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서울시 중소기업과 시민들에게 지식재산과 관련한 중심 기관으로 서울센터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지식재산에 관한 한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가 되어, 특정 분야에서 지식재산 전문가가 아닌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에 관한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적인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발명특허**



서울센터에서는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권리화, 특허정보 활용 및 사업화 등을 담당할 각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소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종합컨설팅, 특허출원 지원, 해외특허출원 등 지식재산에 대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서울지식재산센터 전화 : 02-2222-3866 / 팩스 : 02-2222-3869



딥러닝으로 공감각의 비밀을 밝혀볼까?

▲ IBM은 오감 컴퓨터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진정한 인공지능 컴퓨터가 되려면 오감 인식이 가능해야 한다고 IBM은 예상하고 있다. 오감을 처리하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야 인간의 인식 기능을 제대로 모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뉴럴넷에 기반한 (Deep Learning) 기술이 출현하면서 인간의 인식 수준에 버금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글_ 김성진 Master,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공학박사



딤러닝이란? • 딤러닝을 쉽게 말하자면, 흔히 사람의 사고방식을 컴퓨터에게 가르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쓰이고 있다. 음성인식, 이미지인식이 가장 대표적이다. 최근 페이스북은 딤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을 발표했다. 현재의 얼굴 인식 수준이 사람의 얼굴 인지 능력에 해당하는 97%에 달했다고 한다. 이런 딤러닝 인식 기술은 시각, 청각, 촉각 그리고 문자 해석에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후각과 미각 분야로도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딤러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기술들은 NEC Lab, America(2010년), 마이크로소프트(2013년)의 방법들을 비롯해서 연구소들 사이에서 경쟁적으로 지식재산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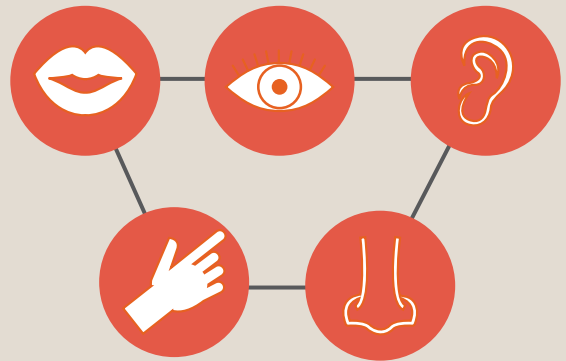
개별 감각을 인식하는 방법으로는 인간 인지 능력에 이르기엔 한계가 있다. 다중 감각 인식이 더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판단을 할 때 개별 감각이 아닌 오감을 활용하는 복합적인 인식을 통해 사물을 판별하게 된다. 다중 감각은 통합 감각과 공감각으로 나뉘어 이해되고 있다. 통합 감각은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받아들여서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공감각은 하나의 감각에서 여러 감각의 느낌을 동시에 받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 감각에 기반을 둔 인식 기술은 실제 활용 단계에 있다. 사용자 인증을 위한 생체 인식 기술의 경우, 여러 감각 분야에서 추출된 센싱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출현하고 있다. 이태리의 팔라비그나(Falavigna) 교수는 화자 인식과 얼굴 인식 모듈을 통합하여 10% 이상 사용자 인증 수준을 높였다.

세상을 보는 특별한 방법 • 공감각에 대해서는 존재 증명을 비롯하여 아직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의학계에서도 신경의 미분화 때문이라고 보는 경향과 자라면서 경험을 통해 여러 감각 인식 부분들이 상호 통합이 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같이 존재한다.

유명한 작가들 중에서도 미지의 영역인 공감각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프랑스가 나온 천재 시인 랭보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상징주의 시인인 랭보는 자소와 색을 융합하여 인식하는 자소-색 공감각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의 '모음들'이라는 시에서 A는 까만색, E는 백색 등 알파벳을 색과 연결해 표현했다.

또한 음악가 코르사코프, 미술가 칸딘스키 등은 색채의 공감각 능력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추상미술의 창시자 칸딘스키의 '온 화이트 2'라는 작품은 일반인이 보아도 클래식 음악이 연주되는 느낌을 받게 될 정도로 음악이 함축된 공감각형 그림이다. 그는 바그너의 '로엔그린'을 듣다가 음악과 미술이 하나가 되는 독특한 현상을 경험했다. 이 경험에 대해 그는 "나는 내 정신의 모든 색깔을 보았다"고 술회했다. 인지 과학자들은 공감각의 발현을 시상 부분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감각 수용체가 경험한 감각이 대뇌피질로 전달되는 중간 단계에



〈IBM사의 오감 인지 기술 도식화〉

시상이 존재한다. 시상에서 감각들이 혼선되거나 공감각이 인지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신경계의 인지 작용을 전반적으로 묘사하는 컴퓨팅 기술이 앞서 언급한 뉴럴넷이다. 뉴럴넷의 기본적인 동작원리는 단순하다. 맨 아래층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센싱 입력을 생체가 기억하고 있는 패턴과 비교하여 유사도를 출력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출력된 유사도들은 시그모이드 판별기를 거치면서 극대와 극소가 줄어드는 자연스러운 형태로 출력이 조정된다. 출력이 조정된 결과들은 상위 층으로 전달되면서 기억하고 있는 상위 추상 패턴과 상관성을 비교하게 된다. 이렇게 계속 추상화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인지의 수준을 높여간다.

뉴럴넷의 구성은 단순하지만, 경험들을 추상화하는 상위 계층의 깊이 있는 학습은 쉽지가 않았다. 초기에 적용되던 통계학적 경사도 탐색 방법을 통한 방법으로는 학습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의사들에 의해 처음 제안된 지 40년 그리고 활용된 지 20년이 지나, 2000년 초반 힌튼 교수 등에 의해 새로운 심화 학습 방법이 고안되면서 뉴럴넷의 저변 활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딤러닝 뉴럴넷은 단일뿐 아니라 다중 감각을 동시에 인식하는 분야에도 점차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적용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 미지의 세계로 남겨져 있는 공감각에 대한 비밀이 한 단계 더 밝혀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 **발명특이**

참고문헌
1) Falavigna, et al., "Person Identification Using Multiple Cues," IEEE 1995

특수 CCTV의 글로벌 강자를 노린다



(주)영국전자

흔히 우리에게 'CCTV'란 범죄를 감시하거나 사건을 기록하는 용도 정도로만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CCTV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상 감시·기록 외에도 여러 특수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 CCTV 분야에서 독창적인 기술력을 뽐내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으로까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가열로 내부감시 카메라, 파노라마 기능을 가진 방폭 카메라 등을 개발하고 있는 영국전자가 바로 그곳이다. 얼마 전 새로운 보금자리로 정착하면서 파워풀한 경영전략을 내세우고, 기술개발에 전념하고 있다는 영국전자의 김배훈 대표를 만났다.



01 기존 CCTV의 문제점을 차단한 영국전자의 PAS(파노라믹 자동추적 카메라) 02 독창성과 창의성이 영국전자를 이끄는 원동력이라 말하는 김배훈 대표 03 직원 절반이 연구인력일 만큼 영국전자는 제품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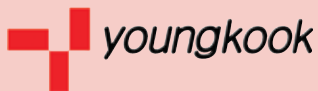
세계시장을 선도하다 • ‘나라를 번영시키는 전자회사’를 모토로 창업한 영국전자는 ‘특수영상장비 개발 제조’ 전문회사다. 국내의 특허, NEP, 성능인증획득을 기반으로 매해 50건 이상의 공공용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 40여 개국의 해외 특허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던 CCTV 분야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

영국전자 김배훈 대표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장소인 ‘CCTV 센터’벽면에는 누가 봐도 ‘큰’ 세계지도가 걸려있었다. 지도에는 각각의 나라별 국기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영국전자에서 특허를 출원한 나라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영국전자가 30개국 정도에 특허를 출원했는데, 중소기업이라는 면에

서는 꽤 많은 편에 속하죠. 베트남, 남미, 콜롬비아까지 여러 나라로 우리 영국전자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고, 저는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멀리 그리고 열심히 나아갈 생각입니다.”

김배훈 대표는 영국전자는 타사와 경쟁하는 기업이기보다 ‘특허’를 내는 것이 목적이자 생존 경쟁력이라고 말한다. 또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여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을 바라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김배훈 대표의 표정이 그러했다. 기업을 위해, 그리고 보다 더 높은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그의 눈빛에서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04



05

독창적인 아이디어, 전문성 강한 CCTV • 영국전자는 자체 연구소를 통해 신제품 개발과 제품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 직원 절반이 연구 인력일 만큼 기술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영국전자는 '혁신(Innovation)'을 비전으로 특수 카메라를 개발, 생산한다. 제품으로는 파노라마 형태의 감시가 가능한 지능형 파노라마 카메라, 특수 산업용 카메라인 핀홀카메라, 방진카메라, 내열카메라, 가열로 내부 감시카메라, 트롤리바 이상검지 카메라, 초저온카메라, 방폭카메라, 산불감시 시스템, 군용카메라 등이 있다. 특수영상장비용 카메라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전문성 또한 뛰어나다.

“저희가 만든 카메라는 산업용 영상장비로, 특수카메라입니다. 그렇기에 시장을 국내로만 한정해서는 안 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넓혀야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기술을 배우고, 아버지와 함께 일본에 가서 그들의 성장을 지켜봤죠. 그런 성장의 시기가 지금 한국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계가 지금 눈앞에 있기에 영국전자의 특수카메라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전자가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데, 2020년 까지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됨과 동시에, 1,3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싶습니다.”

얼마전 영국전자는 'LNG저장탱크 내부 점검용 극 초저온 카메라'를 개발하면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했다. 이 카메라는 LNG기지 저장탱크

내부의 벽면상태 관찰을 위해 사용되며, 어안렌즈를 통해 전체 감시, 측면의 줌 카메라를 통해 확대 집중감시가 가능하다. 특히 LNG저장탱크가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만 약 800여 기를 보유하고 있어 높은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2014년 성능시험과 상용화 실증시험을 거치면서 2015년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주로 LNG탱크, LNG선박, FLNG 등 초저온 상태의 공간에서 내부 환경 및 상태를 관찰하는 카메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회사가 독점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생산을 하지 않고 있어 영국전자가 다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입니다. 이 카메라를 통해 우수한 성능의 국산제품을 생산하고 인정받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와 Win-Win의 관계로 지속할 것 • 영국전자

와 한국발명진흥회의 인연은 2000년부터 시작됐다. 그래서인지 김배훈 대표는 한국발명진흥회를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 이야기한다. “영국전자가 2000년도 대한민국특허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 다. 이 계기로 한국발명진흥회와 인연을 맺게 됐죠.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에서 2건의 특허에 대해 관납료, 번역료, 국내외 대리인비용 등 지원을 받았습



06

니다. 한국발명진흥회의 꾸준한 도움을 받으며 영국전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김배훈 대표는 말했다. 고향 같은 곳이자, 꾸준히 윈윈(Win-Win)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영국전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발 벗고 나설 수 있다고, 백인홍 이사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영국전자의 성장을 응원했다.

“한국발명진흥회가 글로벌 공공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전자와 같은 우수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세계에 내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영국전자 같은 우수기업의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홍보의 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으로,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도약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CCTV의 연구·개발을 진행하며 글로벌 강소기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영국전자. 이 분야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CCTV 업계의 강자로 우뚝 설 그들의 힘찬 행보를 기대해 본다. **발명특이**



07



04 영국전자에서 특허를 출원한 나라를 표시해 둔 지도 **05**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영국전자 **06** 영국전자 김배훈 대표(좌) 한국발명진흥회 백인홍 이사(우) **07** 영상시스템을 통해 CCTV 성능을 확인 중인 영국전자 직원들

발명, 생각할수록 커지는 기쁨

▲ 경찰 발명가 임동규 경위

임동규 경위는 주야간의 교대근무를 하며, 순찰차를 타고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출동한다. 범인을 체포하기도 하고, 취객을 상대하기도 한다.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 그를 이끄는 원동력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발명'이다. 근무하면서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곧바로 휴대폰에 저장해 두고, 심지어 가끔은 자면서도 발명하는 꿈을 꾸다고 하는 그, 경찰 발명가 임동규 경위의 발명에 대한 열정을 들여 보았다.



운동을 하다 생각하다 '이건 왜 그러는 거야?' · 임동규 경위는 그야말로 '부지런한' 사람이다.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기도 하지만, 사소한 것을 쉽게 지나치는 법도 없다. 늘 '이것은 왜 그럴까?'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그런 생각으로 시작된 발명품만해도 수십 가지이다.

그가 발명한 타격연습 운동기구인 '이색편치볼'도 운동을 하던 중에 떠오른 아이디어였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던 중 쉽게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구가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죠. 그러던 중 편치볼이 떠올랐습니다. 타격연습기를 일정하게 궤도를 그리며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면 누구나 위치가 예측 가능해지므로 쉽게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임 경위가 개발한 이색편치볼은 사용자가 편치볼을 타격 하면 빙글 빙글 돌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되돌아오는 편치볼의 위치가 일정해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가며 연속으로 타격이 가능하다. 또한 상단부에 속도 조절 장치가 있고, 조립식으로 탈·부착과 높낮이 조절도 가능해 남녀노소 사용할 수 있다.

임 경위는 편치볼을 완성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전직 복서로 활동한

홍수환 씨에게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홍수환 씨와 체육관 코치님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찬'이었어요. 이색편치볼이 기존의 것에 비해 타격 이후 위치가 일정하게 돌아오니 연속 운동이 가능하다면서요, 그리고 편치볼이 권투 연습용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분히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홍수환 씨로부터 직접 들었죠."

이러한 노력 끝에 임 경위가 발명한 이색편치볼은 지난 2013년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 참가, 특허 청장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개량출원 비용을 지원 받아 개량 발명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발명, 또 다른 '재능'의 발현 · 발명하는 '꿈'까지 꾸는 그의 또 다른 발명품이 궁금해졌다. 그동안 임 경위가 발명한 발명품은 몇 가지나 될까? 갓난아기들을 위한 '발받침 아기띠'를 개발해 특허 등록을 받은 것을 비롯해 차량에 의한 보행자 충격보호대, 운동을 하면서 발 무좀과 각질을 제거하는 발마시지기 등을 특허 출원했다. 또 시위 현장에서 시위자들이 공격할 때만 자동으로 최루액 등이 발사되는 시위 진압용 방패도 특허 등록하는 등 분야도, 종류도 다양하다.



01



02

임 경위는 발명의 '끼'를 발명품으로만 끝내지 않고 더욱 확장해나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전했다.

“저의 발명 사랑은 발명품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은 SNS,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의 공간이 활성화돼 과거에 비해 개발자들이 자신의 상품을 알리는 데 많이 용이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이 발명품을 개발하고 홍보, 판매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색편치볼이 시장에서 성공하면 ‘백화점 식 상설(365일) 특허 매매 장터’를 설립하고 싶습니다. 국내외 바이어, 투자자, 발명가들을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하고 특허품과 중소기업 상품을 직판할 수 있는 장터인거죠. 또한 특허 개발자들이 마음껏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발명특어

01 갓난아기들을 위한 발받침 아끼띠 02 2013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에서 청장상을 수상한 이색편치볼



01



02

03



01 벽에 걸린 날개 조형물은 사람들이 '천사가 되어볼 수 있는' 경험을 선물한다.
02. 04 곳곳에 걸린 예술 작품들이 한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만든다. **03** 창동 예술촌을 알리는 간판이 방문객들을 반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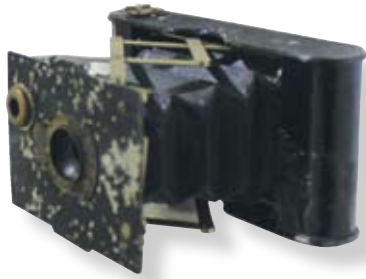
04



흘러간 시간에 덧대어 예술의 꽃을 피우다

창동예술촌 & 창원조각비엔날레

한때 '창동'은 화려한 불빛을 수놓았던 거리였다. 골목골목에는 서점, 주점, 카페, 먹자골목 등이 밀집해 있었고 주말이면 사람들로 넘쳐났다. 하지만 이 뜨거웠던 시간도 잠시, 주변 도시지역의 개발과 동시에 이곳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사람들은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고, 시골벽적 했던 거리는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닫혀있던 상점들이 공방으로 변신하면서, 작가들이 머물기 시작했고 골목마다 독특한 예술작품들이 얼굴을 내밀었다. 잊혀졌던 거리에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명소로 새롭게 떠오른 것이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이하다 • '창동예술촌'은 창원시의 마산합포구 중성동에 위치한 골목 일대를 말한다. 지금은 통합 창원시로 포함된 지역이지만,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유행을 주도할 정도로 가장 변화한 공간이었다. 그래서 '경남의 명동 · 홍대'라고 불릴 만큼 최대 상권을 자랑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창동은 변하기 시작했다. 창원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리고 마산의 섬유회사들이 하나 둘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기존 상권이 빠르게 쇠퇴한 것. 신시가지에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들어섰고, 이 때문에 기존의 상권은 점차 기능을 잃어갔다.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상인들은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해 빈 점포 수도 늘어났다. 번쩍번쩍이는 화려한 시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죽은 거리'가 됐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서서히 잊혀져갔다.

쇠퇴해가던 동네가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된 데에는 지역 주민과 창동 내 상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들은 2007년 '마산도시재생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예술인들이 거쳐 갔던 역사를 바탕으로 '창동예술촌'을 만들었다.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고 임대료를 낮춰 화가, 사진가 등 예술가들에게 작업실로 제공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공간에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이 저마다 한자리씩 차지하였고, 어두웠던 골목은 서서히 생기를 되찾게 되었다.



05

07

06

골목을 누비면 만나게 되는 소소한 즐거움 • 창동예술촌은 옛 마산의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테마로 골목이 구성됐다. 조각가 문신 선생을 재조명하는 '문신 예술', 50~80년대 골목 모습을 복원한 '마산예술흔적', 예술 상인들이 상주하는 '에콜 드 창동'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테마별로 특화된 예술촌은 그 특유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건물의 담장과 벽면은 공공미술로 꾸며졌다.

'마산예술흔적' 골목에 들어서자 창동예술촌을 알리는 풋말이 방문객을 반긴다. 주위를 둘러보니 골목 가게들의 개성만점 간판들이 눈에 띈다. 간판만 보아도 어떤 가게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 가게만의 특징을 고스란히 살렸다. 그리고 벽화와 조형물 작품들이 곳곳에 펼쳐지면서 미술관에 들어온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화가 '문신'이 그린 자화상, 하늘을 유영하듯 날고 있는 아기 천사, 달을 따는 소녀 등 다양한 벽화를 덕에 눈이 즐겁다. 벽화를 계속 보다보니, 동일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 쓰레기, 전깃줄, 그리고 관리가 되지 않아 부서진 벽면 등을 모두 '예술'적 감각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보기 싫은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고, 활용하여 예술로 승화시키니 골목을 더욱 빛나게 했다.

'에콜 드 창동' 골목은 다양한 작가들의 공방이 밀집해 있다. 유리 공예 체험방, 전통 도자기를 제작·판매·전시·체험할 수 있는 공방 등이 자리해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세 개의 테마로 나뉜 골목 투어의 마지막 종점은 '문신 예술 골목'으로 조각가 '문신'을 테마로 조성했다. 마산의 예술가로 대표되는 문신의 작품들이 골목 벽과 바닥에 준비하게 전시 되어 있고, 그의 유품을 접하며 그를 추억해 볼 수 있다. '문신 예술기념관'을 비롯해 파리 유명 아카데미 체험과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랑쇼미에르', '아카데미 뒤페', 100여 대의 카메라가 전시된 '마산 르네상스 포토 갤러리' 등은 꼭 둘러봐야 할 곳들이다.

거리에서 거리로 이어지는 작품의 향연 • 한편 '2014 창원조각비엔날레'가 지난 9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마산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됐다. 창동예술촌 일대 갤러리는 전시공간으로 꾸며져 작가들의 작품들을 곳곳에 설치해 두었다.

창동예술촌을 걸으면서 비엔날레의 작품들이 전시된 장소를 찾는 것도 흥미롭다. 손에는 지도 한 장을 들고, 지도에 표시된 갤러리와 갤러리별로 배치된 숫자를 찾아 골목을 누비다 보면 놓친 거리의 예술품도 다시 들어오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이 축제 기간에만 누릴 수 있는 기회이다.

거리 곳곳에는 마산의 옛 명성을 추억하는 작품과 세월호와 자본주의, 산업화 등을 다룬 미디어아트들이 다양하게 전시돼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리아갤러리'에는 권민호 작가의 '중천, 아주 먼 곳'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사물의 세밀함까지 담아낸 드로잉 작품들로 오랫동안 자리에 머물게 만들었다. 그의 드로잉 작품들은 그가 흥미롭게 포착한 역사적 사실들 혹은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선'들로 표현하고, 지도로 만든 것이다. 특히 그의 작품 중 한쪽 벽면을 가득 매운 건물 드로잉이 눈에 띈다. 조명이 나간 어두운 건물이, 이내 밝은 빛으로 물든다. 마치 상점의 간판들이 빛을 내는 듯하다. 이 밖에도 오묘한 붉은 조명 아래 가부좌를 튼 모나리자 석상인 최현기 작가의 '정서' 등 다양한 작가의 전시품들이 방문객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다.

작품들을 찾아 골목을 누비다 보니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예스러움과 함께 현대적인 멋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다채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창동예술촌. 마산의 옛 문화를 간직함과 동시에 새로움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거리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란다. **블명투어**

05 골목 입구에 설치된 게이트. 문신 작가의 개미작품을 변형하여 디자인 했다. **06** 창동예술촌의 오래된 맛집 '버들국수' **07** 권민호 작가의 '중천(重泉) 아주 먼 곳' **08** 아이들이 그린 세계 여러 나라 국기가 마치 모자이크처럼 붙어있다.



GLOBAL REPORT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각 나라별 지식재산기구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소개합니다

자료제공_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미국 Google, 최다 우선심사 특허 보유

www.washingtonpost.com



지난 10월 26일, 미국 Google은 우선심사(Fast-Track) 제도가 운영된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우선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심사 제도는 기업들이 출원 시에 기본 수수료인 1,600달러에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면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심사적체를 감소시키기 위해 2011년 발명법(AIA)에 의해 도입됐다. 추가 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4,000달러, 중소기업의 경우 2,000달러, 초소형 단체(micro entities) 및 개인 발명가의 경우 1,000달러로

차등을 두고 있다. 우선심사 제도가 시행된 이래,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우선심사를 통해 승인한 특허는 총 6,187건이며, Google이 이 중 14%에 달하는 875건의 특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통신 대기업인 Huawei는 총 147건의 우선심사 특허를 취득하여 2위를 차지했으며, 한국의 LG전자는 72건의 우선심사 특허를 취득했다.

한편, 우선심사 특허를 취득한 기업, 대학교, 발명가 등의 대다수인 97%는 10건 이하의 우선심사 특허를 등록받았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예술·문화 축제를 위한 지식재산 활용 가이드북 발간

www.ip-watch.org



지난 10월 24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예술·문화 축제를 위한 효율적인 지식재산 활용법을 담은 「지식재산과 민속, 예술 그리고 문화 축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는 축제를 관리하는 관계자가 당면할 수 있는 주요 지식재산 관련 문제를 해결해 지식재산권 침해 없이 축제를 개최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북은 축제에서의 지식재산 활용 방법과 세계 문화를 존중하는 인식 강화 등에 대해 설명한다.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물 등은 특별법을 통해 보호되지 않을 경우, 통상의 지식재산권 시스템에서는 공공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축제 관련 위조 상품 제작 및 판매, 축제 실행 중계 문제, 축제 사진을 복제한 엽서 판매, 전통의상 복제, 전통 공연 불법 유통 문제 등을 축제에서의 지식재산 이슈로 간주한다.

일본 특허청, 지식재산담보용자 보급을 위해 중소기업에 전문가 파견

www.sankeibiz.jp



지난 10월 7일, 일본 특허청(이하 JPO)은 중소기업이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보급을 위해 중소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용자하는 경우,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 평가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JPO에 따르면 중소기업에는 지식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는 하지만, 해당 기업이나 금융기관 모두 지식재산 가치 평가의 전문가나 이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해 용자를 실시하는데 장벽이 있다. JPO는 지식재산담보용자로 금융기관과 조정을 진행시키는 중소기업에 지식재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중소기업 진단사나 변리사를 파견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본 특허청, 직무발명시 보상제도를 의무화하도록 특허법 개정 추진

www.nikkei.com



지난 10월 11일, 일본 특허청(이하 JPO)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기업에 의무화하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여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특허법 35조에는 직무상의 발명은 종업원에 귀속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 기업이 사내규정을 만들어서 발명의 가치에 어울리는 상당의 대가를 지불하면 특허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은 사내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대가에 불만을 가진 종업원으로부터 제소당할 위험이 있으며, 중소기업은 사내규정이 없는 곳이 약 30%이다. 개정법에서는 특허권을 회사에 귀속하는 대신 그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해 산업계 전체에서 소송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전면적으로 기업의 재량에 맡기게 되면, 현재의 발명대가보다 종업원에 지불하는 금액이 줄어들 염려가 있다. 따라서 JPO는 법개정과 함께 기업에 적절한 사내보장 규칙을 만들도록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책정할 예정이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① 보상규칙은 노사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② 발명자는 보상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한다.

또한 현행 특허법에서는 발명대가로 사실상 금전지급만 인정하고 있으나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전보상뿐만 아니라 사내표창 및 승진, 유학, 연구자금 제공 등 폭넓은 내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기업이 유연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직무발명에 대한 장려금제도는 발명대가를 요구하는 종업원으로부터의 소송을 방지하는 것과 더불어 발명 의욕을 확보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상표심판위원회,
다국적 기업에 중국 법률을 존중하도록 권고**

www.iprchn.com



지난 10월 14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 상표심판 위원회는 다국적 기업이 중국 내 상표권자들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우월의식을 버리고 중국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표심판위원회는 최근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적 영향력을 앞세워 중국 상표권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다국적 기업의 특권 의식으로 인해 중국 상표권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명 의류 브랜드인 「ZARA」를 소유하고 있는 스페인 Inditex 그룹은 지난 2006년부터 중국인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INDITEX」 상표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패소했고, 상소도 포기했다.

미국의 Tesla도 중국인 권리자와의 「Tesla」 상표권 양도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 소송이 지속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미국의 Apple은 지난 2012년 중국의 선전 프로뷰로부터 「iPad」 상표권을 매입하며 약 6천만 달러를 지급했다.

상표심판위원회는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의 법률 및 중국인들의 권리를 소홀히 생각하는 행태로 인하여 상표권 분쟁 등에서 패배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국 법률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적판이 시장에서 소멸되어 정규 콘텐츠 구입의 대가가 새로운 작품의 창작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지식재산권출판사,
타이어 디자인 이미지 검색 서비스 개발**

www.iprchn.com



지난 10월 14일, 중국 지식재산권출판사는 칭다오 RubberValley 지식재산권사와 공동으로 중국 최초로 타이어 트레드(tire tread) 디자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미지 검색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식재산권출판사는 타이어 트레드에 관한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유럽연합(EU)의 디자인특허 8만 건의 정보와 총 52만 건의 타이어 이미지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한 지식재산권출판사는 이미지로 이미지를 검색*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식재산권출판사는 이미지 검색을 통해 디자인 특허 검색에 있어 가장 직관적이고 단순한 검색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잠재적인 디자인권 침해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지식재산권출판사가 중국에서 제기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분석한 결과**, 외국의 유명 타이어 기업이 중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타이어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디자인특허 검색에 대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디자인특허 데이터베이스는 서지사항 검색만 진행하고 있으므로, 특허 검색 시 업무 효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식재산권출판사는 타이어 디자인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타이어에 관한 기술 연구개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찾고 싶은 이미지를 이미지로 검색하는 서비스는 구글, 바이두 등 검색 엔진에서 시행하고 있음.

** 중국 지식재산권출판사는 지난 1985년부터 2013년까지 특허권 침해 소송 현황을 정리하여 「중국 특허권 침해 소송 상황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

**영국 지식재산청,
「고아저작물 라이선싱 프로그램」 실시**

www.worldpreview.com



지난 10월 29일, 영국 지식재산청(이하 UKIPO)은 기존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던 약 9,100만개의 고아저작물(orphan works)*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고아저작물 라이선싱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동 프로그램은 지난 2011년에 발표된 「지식재산과 성장에 관한 하그 리브스 리뷰***」에 따른 영국 저작권 시스템의 현대화 노력의 일환이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UKIPO는 대중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구성하지 않고 사진, 녹음물, 다큐멘터리 필름 등의 고아저작물을 웹사이트, 책, TV 등에서 복제 가능하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UKIPO로부터 라이선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라이선스를 받고자 하는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고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기 위해 성실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추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 UKIPO는 해당 권리자에게 적절한 라이선스료를 지급하게 된다.

Baroness Neville-Rolfe 지식재산장관은 “동 프로그램이 저작권자가 나중에 권리를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대중들에게는 영국의 우수한 창작물에 대한 용이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이 프로그램이 문화적으로 중요한 넓은 범위의 저작물의 활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고아저작물이란 저작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함.

** 동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http://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67846/orphan-holders.pdf 에서 확인 가능함.

*** 동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ipa.gov.uk/ipreview-finalreport.pdf> 에서 확인 가능함.

**러시아 특허청,
지식재산법 개정**

www.ip-watch.org



지난 10월 14일, 러시아 특허청은 지식재산법을 현대화하기 위해 민법 제4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법을 개정하고 지난 10월 1일부로 발효했다.

지난 2008년 기존의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법을 상위법인 민법 제4부로 통합 이전해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은 「2009 러시아 민법의 개선방안**」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칙)**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의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함(민법 제1253.1조)
- **(저작권)** 인터넷 사이트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함
 - 인터넷 사이트를 번역 저작물,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 등과 같이 동일한 저작물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민법 제1260조 제2항)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
- **(상표법)** 인터넷 상에서 제품 판매를 위해 상표를 사용할 시, 그 상표에 배타적 권리를 인정함(민법 제1474조 제1항)
-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자연 및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로 한정함(민법 제1465조 제1항)

* 자세한 사항은 http://base.garant.ru/10164072/70/#block_40000에서 확인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http://base.garant.ru/12176781/#block_70000에서 확인 가능함.

IP NEWS

특허청 3無3通 콘서트 개최

특허청이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삼무삼통(3無3通)콘서트'을 개최했다. 3無3通이란 지식재산 보호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위조 상품 불법 제조 및 유통 창의적인 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기술 유출 등 3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기관장이 3번의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정책소통 콘서트 이름이다.

“소통으로 지식재산 보호 3대 걸림돌 제거”

첫 번째 콘서트는 위조 상품 불법 제조 및 유통 근절을 주제로 한 '짜통에 숨겨진 비밀과 진실' 편이었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이 참석해 일반 국민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과 위조 상품 불법 유통과 지적권 침해를 주제로 소통했다.

“경제혁신! 영업비밀·기술유출부터 막아야”

두 번째 콘서트는 김영민 특허청장이 참석해 벤처기업인, 대학생, 이노비즈 기업인,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과 기술유출 피해의 심각성과 방지대책 등에 대해 소통했다.

“디자인 아이디어 보호... 창조경제 성큼”

세 번째 콘서트는 김영민 특허청장이 참석하여 디자이너, 디자인전공 학생, 디자인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아이디어 탈취피해사례와 디자인 권리화 방법 등에 대해 소통했다.



글로벌 블루오션, 특허로 공략한다!

-특허청, 물리융합보안산업 IP 경쟁력 강화 추진-

특허청은 한국특허정보원과 한국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 간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물리·융합보안산업의 특허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물리·융합보안산업 IP경쟁력 제고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안 산업은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상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통적인 정보보안산업과 개인 및 주요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개인식별, 영상감시 등의 물리보안산업 외에 IT 기술과 타 산업 간의 융복합 과정에서 발생 되는 융합보안산업으로 나뉜다.

물리·융합보안산업 세계 시장규모는 2013년 기준 약 2,700억 달러, 전체 지식정보보안시장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12.7% 정도의 높은 시장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물리·융합보안산업의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특허의 창출 및 이의 적절한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업 스스로 IP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끔 한 것이다.

체결된 업무협약 역시 물리·융합보안분야 지식재산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써, 영업비밀 관리 및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지원 등의 협력사업을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정보의 활용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경북 신도청 중심지 안동에서 지식재산포럼 개최

특허청은 경북 안동시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14일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지식재산포럼을 개최했다. 경북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개최된 이번 지식재산포럼은 안동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박람회, 안동지식재산포럼, 창조경제 우수사례집 출판기념회 순으로 진행됐다. 지식재산 박람회는 안동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한 전통산업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사업의 성과를 전시한다. 안동 지식재산포럼에서는 '전통산업을 활용한 지식재산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안동대학교 문화산업전문대학원 김시범 교수가 발표하고, 주제별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지역 전통산업 종사자들 간의 열띤 토론이 열렸다.

이어지는 창조경제 우수사례집 출판기념회에서는 2013년 창조경제 박람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출품한 안동의 고택 브랜드화 사업 성과를 '안동의 고택, 브랜드를 입다'라는 책자로 엮어 출판했다.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창조경제 성과에 대해 이번 포럼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안동시는 2009년 기초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식재산도시를 선포하고, 이듬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식재산 선도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까지 안동 사과, 한우, 간고등어, 찜닭 등 안동 특산물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유산인 고택에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도 창출해오고 있다.



**한·중·일 특허청, 고객 편의를 위한 노력 함께하기로
-3국간특허심사·심판제도비교연구결과공개등합의-**

특허청은 지난 11월 10일 서울 파트너스 하우스에서 제4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하여, 특허심사 하이웨이 품질 향상을 위해 각청의 관련 통계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현재 영어로 된 3국 특허청 공동웹사이트(TRIPO.org)를 한·중·일의 3개 언어로 개편하기로 하는 등 고객(출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3국 특허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중·일 특허청장은 그간 전문가 그룹에서 진행해 온 3국간의 심사·심판 제도 및 실무에 대한 비교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대민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한·중·일 비교연구 결과에는 '명세서 보정 기준 관련 비교연구', '명세서 기재요건 관련 사례연구' 및 '가절결정불복심판 관련 비교연구'가 포함된다. 이러한 한·중·일 3국의 심사·심판 비교연구 결과는 3국의 심사·심판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출원인의 이해를 높여 우리 출원인들이 중국 및 일본에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진 5개국 특허청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특허청으로 구성) 협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중·일 3국이 특허제도 조화와 특허 품질 논의, 그리고 특허 분류와 정보화 협력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3국 간 디자인 논의를 위한 디자인 포럼의 지속적인 개최에도 합의했다.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국제 특허 출원 활발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유럽, 미국 등에서도 발견됨에 따라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약물 개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된 발명은 80년대 이후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을 통해 총 713건이 출원, 공개됐다. 그 중 실제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치료에 적용될 수 있는 출원은 총 106건이었다. 상기 출원의 82%는 미국에서 출원됐다.

기술별로 구분하면, 예방용 백신 관련 발명이 40건으로 가장 많고, 치료 또는 진단에 적용될 수 있는 항체 관련 발명이 14건, 치료용 핵산이나 단백질 관련 발명이 16건, 합성 화합물 발명이 29건, 진단방법이나 약물을 스크리닝하는 방법, 관련 장치에 관한 발명이 7건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는 크게 바이오 의약품과 합성 의약품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백신, 항체, 핵산 또는 단백질 등이 바이오 의약품에 속한다. 바이오 의약품은 전체(106건)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2002년 이후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지맵, TKM-에볼라, 임상시험 대상인 에볼라 관련 백신 등이 바이오 의약품에 속한다. 이들 중 지맵은 에볼라 바이러스와 결합해 그 활성을 방해할 수 있는 항체이고, TKM-에볼라라는 에볼라 바이러스 단백질이 체내에서 생성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핵산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임상시험 대상 백신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투여해 체내에서 에볼라에 대한 면역성을 높이고자 하는 예방용 약물이다.

합성약품으로 분류되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인 파비 피라비어(아비간)는 본래 독감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최근 실험동물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억제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합성 의약품에 관한 발명은 전체의 27%로, 2008년 이후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새로 만들어진 물질도 있지만, 파비 피라비어와 같이 이미 다른 용도로 개발된 의약품이 에볼라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서, 유사한 원리를 이용하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부들의 고민 음식물쓰레기, 특허로 완전 해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1년 만에 특허출원 52% 급증 -

작년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에 대한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에 대한 특허출원은 2013년 391건으로 전년 대비 52% 급증했는데, 특히 그동안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외면하게 만들었던 전기소모량과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의 출원이 활발해지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은 크게 온풍·온열, 분쇄/교반, 발효, 탈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처리방식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발효방식이 2013년 108건으로 가장 많이 출원(전체 출원 중 27.6%)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리물을 비료로 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고 고온을 필요로 하지 않아 전기소모가 비교적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발효방식 출원으로는 「미생물을 배양시킨 바이오칩으로 음식물을 분해하는 장치」가 있다(등록 10-0701480호). 이 발명은 온도 및 습도센서로 미생물 활동과 증식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 조건을 자동으로 유지하여 사용편의를 향상시켰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별 출원현황을 살펴보면, 악취제거 기술은 20년에 127건 출원되어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업계는 종량제 본격 시행에 따라 처리기 시장이 2016년 9,3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전기소모량 및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의 출원 증가는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 전통지식, 온고지신하세요!

- 한국 전통지식 포털, 사용자 편의성 대폭 높여 새단장 -

특허청은 지난 11월 10일,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 새로운 한국 전통지식 포털(www.koreantk.com)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전통지식 포털은 한약재, 김치 등 우리나라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2007년 개설됐다. 전통지식의 경제적 중요성이 상승하면서 천연약재, 전통처방, 향토음식, 전통공예 등 폭넓은 분야로 확대하였고 2014년 현재 약 36만 건의 방대한 지식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전통지식문헌은 2009년 국제특허 심사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PCT 최소문헌으로 지정되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특허청의 심사에서도 활용됨으로써 우리 전통지식이 특허로 독점되는 것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전통지식 포털은 2007년 개설된 이래 7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보다 쉽고 정확하게 원하는 전통지식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일반 사용자가 좀 더 편하게 전통지식 데이터를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 인터페이스를 개선했다. 전통지식 데이터의 검색 방식을 제목이나 학술지 등을 지정하여 검색해야 하던 기존 필드 검색 방식에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유 검색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유사도순 정렬기능도 추가했다.

또한, 특별한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화면에서 원하는 대항목을 선택한 후, 중항목, 소항목으로 클릭하면서 세부 정보를 찾는 열람가능 검색 시스템도 도입한다. 다음으로, 참여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와 연동 되는 소셜 댓글 기능도 도입했다.

전통지식 포털의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가 의견이나 추가 내용을 댓글로 작성하면, 이를 SNS로 확산시켜 제3자가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전통지식 데이터 및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용자 사이의 지식교환 기능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기술로 흡연자비흡연자 공생의 길 연다

- 흡연 규제 강화에 따라 최근 4년간 흡연실 관련 특허출원 급증 -

지난 2011년,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 확대 시행과 최근 정부의 담배값 인상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흡연권을 보장해 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흡연실에 대한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흡연실 관련 특허출원은 2009년 2건, 2010년 1건에 불과하다가 2011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9월까지 34건으로 이미 작년 출원 건수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흡연실 특허는 중소기업(61%)과 개인(45%)이 대부분 출원하고 있어서, 흡연실이 중소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산업용 부스 제작업체와 이동식 화장실 제작업체는 각자의 기술을 기반으로 발 빠르게 흡연실 제조에 나섰다. 흡연실 특허 출원은 이제 막 붐이 일기 시작한 만큼, 출원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산업 분야의 기존 기술을 접목시키는 아이디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공기정화 분야에서는 탈취용 참숯, 미세먼지 제거용 헤파필터, 그리고 탈취·미세먼지제거·살균이 동시에 가능한 플라즈마램프 등이 흡연실에 채택되고 있으며, 옷에 묻은 담배 냄새 제거를 위한 탈취제발생기도 흡연실에 마련되고 있다.

흡연실 구조 분야에서는 바퀴달린 이동식 흡연실, 굴뚝형 흡연실, 에어커튼 설치 흡연실 등이 출원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태양열·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도 흡연실에 이용되고 있다.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입구에 경사면을 마련하거나 재떨이에 물분수대가 있어 자동으로 담뱃재를 청소하는 흡연실이 출원되고 있다.



KIPA NEWS

「발명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우리가 주관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부좌현·전하진 국회의원이 주최한 '발명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1월 1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발명교육 현장에서 제도적 지원과 발명교육 관련 정책 및 지원시책을 구체적인 근거로 지원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충남대 이병욱 교수가 '창조경제시대에 부응하는 발명·지식재산교육의 확산 및 근거법령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이병욱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김규상 장학사, 서울해화여고 홍덕표 교장, 퓨처플레이 황성재 파트너, 국회 법제실 남경훈 법제관, 특허청 정대순 과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발명교육 일선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서로 토론함으로써 발명교육 지원법의 필요성과 국가 정책적 차원의 발명교육지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특허청·YTN과 발명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리는 특허청, YTN과 지난 10월 23일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YTN 뉴스퀘어에서 청소년 발명기자단 활성화 및 발명문화 확산·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의적 인재 육성과 대국민 발명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창의인재 육성과 전 국민적인 지식재산·발명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약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세 기관은 ▲특허청 청소년발명기자단 대상 언론교육 운영 ▲온 가족이 참여하는 대규모 발명·과학 행사 개최 ▲지식재산·발명문화 조성을 위한 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회와 특허청은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해온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은 다양한 취재활동과 기사작성을 통해 발명문화 확산과 학생들의 창의적 논술능력 함양에 크게 기여한바 있는데, 이번 YTN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발명기자단 소속 학생들은 청소년 '기자'로서 본연의 전문성을 더욱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은영 부회장은 "이번 특허청·YTN과의 협업을 통해 발명문화가 전 국민적으로 파급될 것이라 기대되며, 미래발명인재 육성을 위해 청소년 대상 교육 및 발명문화 조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회와 특허청은 지난 7월과 11월 실시된 청소년 발명기자단 학생들의 YTN 견학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는 행사와 방송 프로그램을 YTN과 공동으로 기획함으로써 전 국민적인 지식재산 확산과 발명문화 조성에 앞장 설 예정이다.



**정보통신(ICT) 및 융합 분야
기술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리회는 지난 11월 6일 킨텍스에서 정보통신 R&D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국내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정보통신(CT) 및 융합 분야 기술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ICT 기술가치평가 활성화를 위하여 ▲ICT 기술평가 업무협력 ▲관련 정보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공유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 수요자-공급자 연결 기술거래, 기술금융의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상호협력 ▲ICT 및 융합 분야 기술평가모형 표준화 협력 ▲기타 정보교류 및 기관별 사업에 대한 상호 홍보 등 다양한 협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산·학·연·관이 참여해 ICT 기술가치평가 활성화와 기술사업화 촉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회 R&D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평가 컨퍼런스'도 함께 개최됐다.

미래창조과학부 김광수 과장(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은 기조연설에서 ICT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지향형 R&D 혁신,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기술사업화 추진체계 개선, 네트워크 강화 등의 4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으며, 또 다른 기조연설자 한국경제신문 안현실 논설위원은 '기술평가-정부와 시장의 파트너십'이란 제목으로 기술가치평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장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세션 1에서는 '기술거래·평가시장 동향 및 발전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주제 발표 후, 이어진 세션 2이자 패널토론에서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의 새로운 역할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2014 대학창의발명대회
시상식 개최**

지난 11월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4 대학창의발명대회' 수상작품에 대한 전시회 및 시상식이 열렸다. 이 대회는 창의력 있는 우수 발명 인재를 발굴하여 권리화·사업화를 지원하고, 대학(원)생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2014 대학창의발명대회'에 전국 124개 대학에서 3,961건의 발명이 출품되어 경합을 벌인 끝에 이 대회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안면 자동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스마트 전동요람'을 발명한 인제대학교(김학수, 황태민, 장은석) 팀이 거머쥐었다. 최고의 발명으로 선정된 '안면 자동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스마트 전동요람'은 전동요람의 정면 상단에 위치한 얼굴 인식 카메라를 통해 옆으로 누워진 아기를 인식하고 요람을 기울임으로써 바로 눕게 하여 질식사를 방지하여, 유아에게는 정서적 안정감을 그리고 부모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계절에 따라 블라인드를 실외, 실내로 이동 시킬수 있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창문일체형 블라인드'를 발명한 아주대학교(이창래, 문석현) 팀이 수상하였으며, 삼키는 움직임과 소리를 인식하여 횡수를 측정하는 '음식물 삼킴 횡수 측정 시스템'을 발명한 포항공과대학교(이백희, 이승훈) 팀이 특별상인 WIPO사무총장상을 수상했다. 이들 수상작은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과 연계하여 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중소기업청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우수 발명품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지식재산에 강한 융합인재 발굴
2014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시상식 개최

'2014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대회 시상식'이 지난 11월 1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수상자와 후원기업 대표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총 45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문제 출제에 참여했으며, 전국 109개 대학 3,757개 팀(4,570명)의 대학(원)생이 약 8개월간 치열한 경쟁을 펼쳐 총 37개 대학 158팀(257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 대회 최고상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수상자로 특허전략 수립부문에서는 단국대 고분자공학과 이강희, 권민지, 여준석 씨가, 선행기술 조사부문에서는 인하대 전자공학 박사과정 김명수 씨가 각각 선정됐다. 특히 특허전략 수립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단국대 팀은 '터치 패널용 금속물질을 적용한 전도성 필름'의 핵심특허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특허 전문가들이 참고할 정도로 우수한 수준으로 지식재산 확보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도 교수상에는 단국대 황석호 교수, 한국기술교육대 김석준 교수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한국공학한림원회장에 각각 선정됐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대학의 실용적인 특허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문제로 출제하고 대학(원)생이 해답을 제시하는 국내 대표적인 산학협력대회로, 대회의 수상자들은 참여기업의 연구소 및 특허팀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검증된 인재로 평가받아 해당 기업에 취업 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 거래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2014 지식재산활용전략 콘퍼런스 개최

우리회는 지난 11월 18일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및 지식재산 거래 회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지식재산 활용전략 콘퍼런스」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특허청과 함께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식재산 거래·사업화에 대한 최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식재산 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미국 Silicon Valley Business School 교수가 자 IBM 수석 엔지니어인 김문주 박사가 '미국의 지식재산거래 비즈니스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했다. 세부 주제 발표로는 잠재적 특허기술 수요기업 발굴·선정 시 고려할 요소(Value Street Consulting Group, 이대희 대표), 기술거래 수요자가 알아야 할 시장조사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방법론(삼일회계법인, 이종철 회계사), 사례로 살펴본 중국 기술이전 실무의 유의사항(知心 IP & Company, 유성원 대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중요성 및 일본 분쟁사례 소개(이-버드 국제특허법률, 신용현 대표변리사),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정부사업 소개(BLT 특허법률, 엄정한 변리사)도 함께 다루어졌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특허기술 이전·사업화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상했다. 특허청장상은 (주)메가젠임플란트와 (주)아이딘이 수상했으며,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한국조폐공사가 받았다.



직무발명 포럼 및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우리회는 특허청과 함께 지난 10월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를 위한 '2014 직무발명 포럼 및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된 9개 기업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기업의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 직무발명과 관련된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특허청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에 한국전력공사, (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 등 총 9개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식을 실시했다.

행사 1부에는 직무발명 우수기업 중 한국전력공사, 서울바이오시스(주), (주)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각각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표로서 각 기업규모별 직무발명 우수사례를 발표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하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했다.

2부에서는 기업의 직무발명 운영현황이 기업의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 및 직무발명 보상제도 관련 최근 이슈 및 기업사례에 대해 국내 지식재산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져 직무발명 승계 보상제도의 효과 및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했다.



제6회 중소기업 지식재산(IP)경영인대회 개최

전국의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2014년 IP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그 성공 노하우를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우리회와 전북지식재산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6회 중소기업 IP경영인대회가 지난 11월 21일 전주 호텔르윈 백제홀에서 개최됐다.

지식재산 중심의 기업경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IP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IP경영인대회는 200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한다.

호남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특별상이 신설되어 2개 기업이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상을 수상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개 기업, 특허청장상 6개 기업 등 총 16개 기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IP스타기업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케이맥(주)는 IT, NT 분야의 측정분석기기 생산업체로서 사내 IP협의체 운영,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자동차 연료공급용 연료펌프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코아비스는 IP전담부서 운영, 직무발명 보상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일반기업부분 대상을 받았다. IP경영인대회가 끝난 후, 전라북도외 공동으로 전북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개최해, 전라북도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식품 분야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참가자들 간의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우리회, 특허청·WIOP·KAIST와 함께
‘제5회 블랜디드 국제교육과정’ 개최**

우리회는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19층 국제회의실에서 특허청, WIPO 및 KAIST와 공동으로 ‘제5회 한-WIPO 공동 국제교육과정(AICC, Advanced International Certificate Course)’을 개최했다. 국제지식재산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이 과정은 우리회, 특허청 및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KAIST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글로벌 비즈니스 경영 환경에서 지식재산권의 활용전략에 대한 사례 연구 등이 다루지는 오프라인 영문 심화교육과정으로, 사전 온라인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중 23개국에서 4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국제교육과정에는 지식재산 교육분야의 전문가인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의 클린턴 프란시스 교수(Prof. Clinton W. Francis), 호주 기술거래 및 라이선싱 전문가 필립 멘데스(Mr. Philip Mendes), WIPO 혁신국의 매튜 레이니 국장(Mr. Matthew Rainey), KAIST 지식재산대학원(MIP)의 최동진 교수 등이 강사로 참석해 ‘지식재산 경영 및 활용전략’을 주제로 IP라이선싱과 기술거래의 중요성 및 전략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뤘다.



**제38회 전국 초·중학생
발명 글짓기·만화 시상식 개최**

초·중학생들의 기발한 발명 상상 아이디어가 담긴 ‘지구를 여행하는 트래블러를 위한 안내서’, ‘맹인 안내 로봇견 I’, ‘미래의 소화기’ 등 6개의 작품이 ‘제38회 전국 초·중학생 발명 글짓기·만화 공모전’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받았다. 우리회와 포스코는 모두 3,545건이 접수된 ‘제38회 전국 초·중학생 발명 글짓기·만화 공모전’에서 총 214명의 수상자를 선정, 지난 11월 19일 포스코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공모전은 ‘발명으로 달라진 20년 후의 우리생활’이란 주제로 국내 초·중학교 재학생 또는 만 7~15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 가운데 글짓기부문 대상은 김대희(하원초6, ‘지구를 여행하는 트래블러를 위한 안내서’), 조한비(함양여자중2, ‘2034년 10월 7일의 8시 발명 뉴스 대본’), 여수진(진천삼수초6, ‘2033, 행복한 우리의 모습’) 학생이, 만화부문 대상은 류연정(아람초3, ‘맹인 안내 로봇견 I’), 윤지희(화성예당중3, ‘발명으로 안전해진 행복한 미래’), 심윤우(서울매봉초6, ‘미래의 소화기’)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지도교사상에는 강정희(함양여중), 정순채(진천삼수초), 김종명(화성예당중) 교사가 선정됐고, 단체상은 진천삼수초등학교와 연수중학교가 선정됐다.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공모전은 청소년 발명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논리적·창의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서 1977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38회째이며, 우리회가 주최하고 포스코가 협찬하고 있다. 조은영 부회장은 “이번 발명 글짓기 만화 공모전을 통해 청소년들의 기발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발명에 관심을 두고 창의인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회, 41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우리회는 지난 10월 17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41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간소하게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조은영 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41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난관을 극복하고 발전을 거듭해 온 현 임직원과 선배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조은영 부회장은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발전진흥, 지식재산 정책을 이끌어 옴으로써 사회 곳곳에 지식재산을 보강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왔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지식강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글로벌 지식재산 창조기관을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힘찬 격려의 말을 전했다.



KIPA 사회봉사단, '연탄배달' 따뜻한 나눔 실천

KIPA 사회봉사단이 연탄배달부로 변신했다. 우리회 KIPA 사회봉사단은 지난 10월 16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가구를 집집마다 방문해 쌀과 연탄을 기부하고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KIPA 사회봉사단장으로서 행사에 직접 참석한 조은영 부회장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 나눔과 봉사를 적극 실천해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발명특허의 모든 것 “보고, 듣고, 생각하다”



9+10월호 리뷰

지식재산 전문정보지 [발명특허]는 매호마다 각각의 콘텐츠에 대한 ‘2014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으며, 이 코너에 주요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공감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지난 9+10월호에 대한 모니터링단의 주요 의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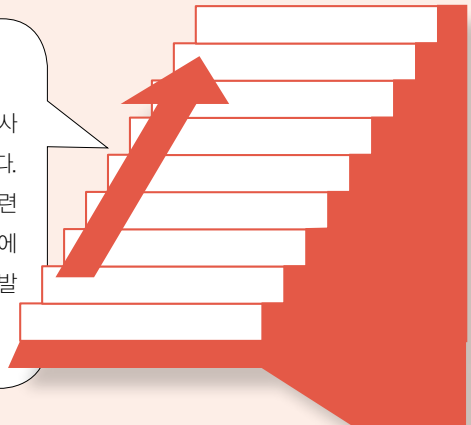


● 이동훈 (대학생, 28세)

발명특허 9, 10월호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스템적 사고”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시스템적 사고란, “전체의 입장에서 부분을 이해하며, 상호 관련성을 추구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즉, 어떤 한부분에 몰입하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결합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번 호의 대부분의 기사들은 모두 이러한 시스템적 사고와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기록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대부분의 뛰어난 창조는 기록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것을 융합·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시스템적 사고와 직결되는 것이다. 구글과 MS의 모토로라·노키아 인수 이면에 존재하는 특허전쟁 의의에 대한 기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구글이 모토로라를 사고 단말기 부분을 팔았다는 기사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이 하드웨어를 보강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읽기 어려울 것이다. 특허가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가 대부분인 구글과 MS가 침해여부와 입증쉬운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를 보강함으로써 특허전쟁을 대비하고 있다는 이면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것은 융합을 빼 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누구나 보아도 감탄할 만한 기사였으며, 시스템적 사고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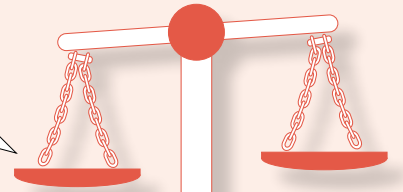
● 김서정 (주부, 33세)

〈지식 더하기, 기술 나누기〉 - 이번 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는 (주)라파바이오에 관한 기사이다. 이 기사를 보고나서 야구선수 요기베라의 “끝날 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김정환 대표는 대기업 자제로서 잘 닦여진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었을 텐데 대성그룹과는 전혀 관련 없는 바이오산업에 뛰어들어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에서, 나는 ‘내 자신을 너무 틀에 가둬놓고 생각하지 않았나’ 하고 뒤돌아보게 되었다. 두려움 테지만 자신의 신념을 위해 한발 한발 내딛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 이수동 (공무원, 61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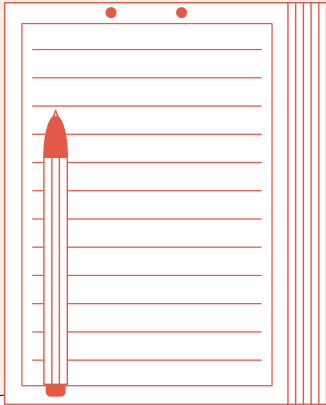
〈IP FOCUS〉 -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고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류로 인한 해외에서의 국가 및 한국 기업 브랜드의 이미지 상승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와 한류 스타의 초상 등을 활용한 각종 상품화권 사업, 광고 및 콘텐츠 문화사업의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으므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노재연 (기업인, 53세)

〈IP FOCUS〉- '퍼블리시티권'에 관련된 기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 자기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커먼로(Common law) 국가와 달리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권리인정이 되지 아니하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성문규정이 없으므로 성문의 권리를 인정 할 수 없다.

현재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광고 산업의 발전으로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으로서의 양도성, 상속성, 사후 존속기간 등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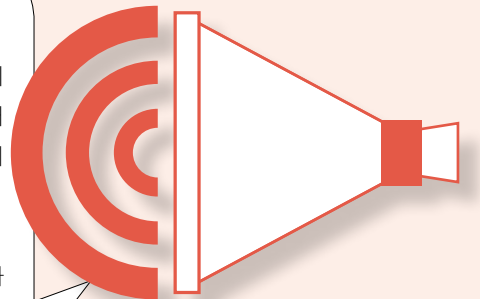
● 이석진 (특허 컨설턴트, 34세)

〈IMAGINATION〉 - 평소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특집 칼럼 '적자생존, 모든 위대함을 만드는 기록의 힘'에서 소개한 에디슨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메모하고 구체화 시키는 과정이나 류비셰프의 기록과 통계를 적용하여 효율적인 창조활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례를 읽고, 유명인들의 창조적인 메모 노하우는 정보화시대에 우리가 한번쯤 고민해봐야 할 큰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 한명우 (직장인, 49세)

〈ACTION〉 - '조직을 혁신하는 새로운 시각'이란 기사를 통해 '주니어보드'라는 것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조직생활을 하면서 조직운영에 관한 불만이 생길 때 불평과 하소연을 하긴 하지만, 주니어보드처럼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창구가 있는지를 처음 알게 됐다. 우리 조직에도 도입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됐다.

〈IP FOCUS〉 - 평상시에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막연히 관련 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구글+모토로라, MS+노키아 삼성+' 기사를 통해 정부가 소프트웨어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펼치는 이유와 당위성을 실질적인 사례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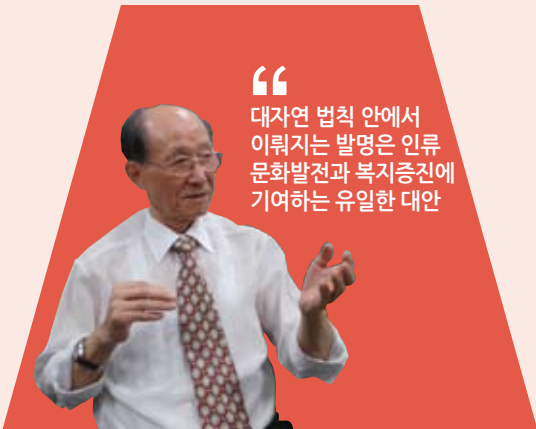
발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시대 존경받는 원로 발명가들을 소개합니다!



원인호 발명가 특허등록 400여 건



“
대자연 법칙 안에서
이뤄지는 발명은 인류
문화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유일한 대안

대한민국 발명계의 산증인인 원인호 발명가는 현재 발명전문연구기관인 '한국발명원'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1981년 65개국에 참가한 제네바 국제 발명대회에서 당당히 최고 금상을 수상했으며 이어 2000년 5월 부다페스트 국제 발명 올림픽대회에서 20여 년간 연구한 '풍력과 집풍시스템에 의한 풍력발전장치'와 금, 은을 주성분으로 개발한 '미용비누'를 출품해 '그랑프리 대상'과 '제롬컵상', '천재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지난 2009년 12월 제5회 서울국제발명대회에서 40여 년의 연구 끝에 발명한 '원인호 양기동 풍력발전장치'를 선보이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 양기동 풍력발전장치 발명으로 2009년 12월 제5회 서울국제발명대회 최고 권위의 IFIA 대상, ECO 대상, WIPO대상, 세미그랑프리상, 금상 7개, 은, 동상 7개 등을 수상한 것. 그는 "안전하고 실용성이 뛰어난 풍력발전기를 발명해 국력 신장과 지구촌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하상남 발명가 특허등록 30여 건



“
한국서도 제2, 제3의
퀴리부인, 빌게이츠
나올 수 있어

하상남은 50년대 이름 난 영화배우를 거쳐 60년대 이후 발명에 눈 돌려 1993년 여성발명가협회를 창립해 후진양성에 힘써오고 있다. 그녀가 개발해 특허를 따낸 '세리온'으로 1992년과 2002년 독일 뉴른베르크에서 열린 국제 발명특허전(ENA)에서 거꾸 대상을 탔다. 세리온은 상처에 바르면 피를 멎게 하고, 이를 비누로 상품화한 세리온비누는 아토피 및 알레르기성 피부병과 가려움증, 전염성 눈병 등에 특히 효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의 지나온 삶 자체가 한 편의 영화같이 느껴진다. 한국전쟁 때 파편에 맞아 오른쪽 손목이 잘려나갈 뻔했던 일이 그녀에게 두 가지 기회를 가져왔다고 한다. 신물질인 세리온을 발명, 꾸준히 사용 후 혈액이 돌게 해 지금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 그 하나요, 아픔을 이겨내고 50년대 최고 배우 반열에 올라선 게 그 둘이다. 사기와 모함에도 꺾이지 다시 일어서는 하상남 발명가는 중국 이공대의과대학에서 임상실험을 마치고 희망에 부풀어 있다. 오래도록 발명가로 기억되고 싶다는 그녀는 지금도 '발명'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KIPA QUIZ

Readers Comments



• 2014년 11+12월호 퀴즈

Q. 어떤 날 선도기업의 제품을 본 후 그 다음날 다른 매장에서 모방기업의 제품을 보았을 때 두 제품을 같은 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본다는 말로, 때와 장소를 달리해 수요자의 불확실한 기억을 기초로 유사여부를 판단한다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Q. 어떤 감각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감각 간의 전이 현상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 2014년 9+10월호 퀴즈 정답

01. 퍼블리시티권

02. 입체상표제도

• 2014년 9+10월호 퀴즈 당첨자

이현희 ribo****@nate.com (경기도 부천시)

정운주 jo****@hanmail.net (경상남도 양산시)

김정희 sury****@naver.com (대전광역시 갈마동)

• 정경석 (대전광역시 중구)

조직을 혁신하는 새로운 시각, KIPA 주니어보드 개최 관련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소통의 창구를 넘어서 젊은 중역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변화의 선봉장이 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전 직원들과 공유하는 채널로써 참신한 시각과 사고방식이 조직 발전의 큰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함께 화합하고 단결하며 소속감을 고취시키는데도 KIPA 주니어보드가 큰 동기제공을 할 수 있을거라 기대해 봅니다.

• 강현정 (경기도 시흥시)

에디슨, 루비세프, 다윈, 칼 마르크스 등 과거 위대한 발명가들의 놀라운 기록습관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삶의 편리와 풍요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모든 정보와 지식을 인터넷에서 찾아본 후 바로 잊어버리는 요즘 세대가 조금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는 기록습관으로 지식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갔던, 위대한 발명가들의 아날로그적 생활습관만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꼭 본받아야 할 습관인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 전문정보지[발명특허]를 읽고 퀴즈의 정답과 독자 의견을 pk6122@kipa.org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일 2015년 1월 14일)

원고 모집 안내

한국발명진흥회가 발간하는 「발명특허」는 발명진흥사업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및 정보를 다루는 전문정보지로 본회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고 투고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원고 모집 안내

「발명특허」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 의견과 정책·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간되는 지식재산 전문정보지입니다.

콘텐츠 중 [IP Focus]에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정보를 선도하고 정책·기술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투고를 받고자 합니다. 단, 길고 딱딱한 글이 아닌 신문의 칼럼 형식으로 누구나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원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모집 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칼럼
- 원고 주제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롭게 선택
- 원고 분량 : 원고지 22매~24매(A4용지 10Point, 3매 이내)
- 모집 시기 : 상시 모집
- 보내실 곳(E-mail) : pk6122@kipa.org

● 한국발명진흥회 지회·지부 안내

지회·지부	지회장·지부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정기상	김유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607(가야동) 새마을회관 6층	051-645-9683
광주지회	김보곤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 경제고용진흥원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보듬관 403호	033-264-6580
전북지부	-	정승원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오식도동) 2층 9호	063-471-1284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적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촉진
-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 및 사전 분쟁 예방
-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인증제 개요

-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신청 자격

-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인증 절차



인증심의 기준

- 평가 기준 : 직무발명보상규정(20점), 보상실적(40점), 운용의 합리성(40점)
- 인증 기준 :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특허, 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 자격부여
-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
(특허청) 민간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지원사업,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품공정 개선기술개발사업 등
(미래창조과학부) SW공학기술현장적용사업 등 3개 사업(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 인증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등록료 감면(2년간, 2014.03.01.일부터 적용)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4년 3월 3일부터 연중 수시접수 (발급수수료 : 무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신청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 (02-3459-2845, 2793 / 2845@kipa.org)

2015년도 '대학(원) 지식재산 강좌지원' 신청 공고



사업목적

- 학부 및 대학원에 지식재산 강좌개설·운영을 지원하여 대학(원)생의 지식재산 인식제고 및 실무능력 향상 도모

지원내용

- 지원 학기 : 2015년 1학기 및 2학기
- 지원 대상 : 지식재산 강좌개설 및 운영을 희망하는 대학(원)
- 지원 내용
 - 지식재산 전문강사의 오프라인 강의 제공
 -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 및 교재 등 교육 콘텐츠 제공
- 운영 형태 : 학점이 인정되는 정규과목
- 지원 강좌 수 : 000개 강좌

세부 지원내용

- 오프라인 강의지원 : 아래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 후 강좌지원신청서 작성·제출

교육 프로그램	지원범위	교육목표 및 내용
창의적 사고	5주 이내	이공계 공통 교과목(창의적 사고, 창의적 기초설계)에 일반적인 지식재산 교육내용을 포함·운영하여 대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
창의적 기초설계	5주 이내	
지식재산 입문	15주 이내	지식재산(특허, 상표, 디자인/저작권) 개요 및 특허정보조사, 특허명세서 작성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을 이해하는 능력 함양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8주 이내	특허를 중심으로 특허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분석방법을 이해하고 실습과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능력 배양
창업과 지식재산	15주 이내	기술 창업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사업계획 작성 등 실전전략 수립능력 함양
특허관점의 R&D전략	15주 이내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제품을 특허의 집합체로 인식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IP-R&D 전략수립 방법으로 교육
스마트폰 앱과 지식재산	15주 이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보호, 침해사례 등 교육
건축과 지식재산	15주 이내	건축설계창작물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위해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 등에 대한 교육
의약·생명공학과 지식재산	15주 이내	의약·생명공학 분야의 국내외 특허동향, 특허정보검색 및 분석방법, 특허명세서 작성 등 교육
경영과 지식재산	5주 이내	지식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에서의 새로운 경쟁력인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예술과 지식재산	8주 이내	지재산에 대한 이론 교육과 상표·디자인 검색·분석 등의 실무지식을 교육하여 창작물의 지식재산 권리화 및 전략적 활용능력 함양
지식재산 특강	4주 이내	학습내용과 강의지원 주치는 담당교수와 협의를 통해 운영

• 교육 콘텐츠 지원

-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의 지식재산(IP) 이러닝 제공
-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 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을 대비한 온라인 강의 제공
- 대학(원)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 가이드북 및 강의 교재 등 교육 콘텐츠 제공

신청기간 및 방법 · 문의처

- 신청 기간 : 2014. 11. 13(목) ~ 12. 29(월)
- 신청 방법 : 지식재산인력양성사업 종합정보시스템(www.iphuman.or.kr)을 통해 지원신청
- 제출 서류 : 지식재산 강좌지원 신청서 1부, 수업계획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및 교수풀 등록	해당 강좌의 정보 입력(강의시간 등)	문서 인쇄 및 제출서류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부 사업담당자(02-3459-2813, ddcroser@kipa.org)

나에게 **꼭** 맞는 취업 정보 쉽게 찾을 수는 없을까요?

최신 채용정보와 지식을 공유 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재들을 위한 취업포털 사이트에
지금 바로 접속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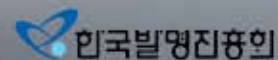
ipin (www.ipin.or.kr)에는

인재가 희망하는
지식재산기업 채용정보와
기업이 원하는 지식재산 인재정보로
가득합니다.



ipin 제공서비스

- ▶ 지식재산분야 채용 및 인재정보
- ▶ 지식재산분야 최신뉴스 및 교육/행사정보
- ▶ 각종 지식재산 정보와 취업 노하우 공유
- ▶ 언제 어디서나 보다 쉽게 만나는 모바일
IPIN(m.ipin.or.kr)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의 매력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남쪽에 2030년까지 인구 50만을 목표로 건설 중인 중앙행정기능 중심으로 하는 복합형 자족도시

•면적:

72.91km² X 4 = 72.91km²



1 세계 최초의 환상형 도시 (2-Ring city)



환상형 링 모양을 따라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자식기반의 6개 주요 도시기능을 거점별로 분산 배치

중앙녹지공간 금강과 국내 최대규모의 녹지공원 조성

행복도시 개발지역 도시의 6개 주요 기능을 분산 배치

주변녹지공간 도시 주변을 녹지로 보전하여 개발 원충 억제 수행

2 녹색심장을 가진 국내 최고의 친환경 도시

도시의 중앙을 집중 개발하는 타 도시와 달리 중심부에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도시의 허파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전체 면적의 52%를 공원, 녹지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

4 기능·미관·자연이 잘 어우러진 디자인 명품 도시

도시 통합디자인, 7대 경관 기준,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도입·적용, CO2 70% 감축,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최첨단 설계기법 적용



3 쾌적한 5無 도시

점포주택, 콘크리트담장, 전봇대, 광고입간판, 쓰레기통 없는 쾌적하고 친환경적 도시 건설



6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교육도시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유지하고 유비쿼터스 기반의 스마트스쿨 도입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과 글로벌 우수대학 유치로 세계적 명문교육 시행

5 선진국 수준의 문화·예술·레저도시

생활권 내 쉽게 이용가능한 도서관과 문화의 집을 설치하고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박물관, 공연장, 체육관 등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공공문화 인프라 구축



7 어디서나 빠르게 오가는 사통팔달 교통도시

2개 KTX, 4개 고속도로, 3개 국도, 13개의 광역도로가 연결되는 국가 교통망의 중심, 착주근접(착지近接)을 구현하는 도시설계로 대중교통 분담률 70%의 친환경 녹색교통 실현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정부3.0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새 시대를 정부3.0이 함께 열어하겠습니다.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우리 아파트 관리비

속보이게 해드립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민간개방

나라장터
민간개방

입찰·계약·대금지급까지
클릭 한 번으로 완성!

공공기관만
이용



공공기관+민간
공동이용

효율성 **↑**
투명성 **↑**

2013년 아파트관리사무소
영농·어조합법인
2014년 비영리단체
2015년 중소기업

2016년 전·면·개·방

나라장터
개방효과

1 투명한 거래

입찰·낙찰 정보 실시간 공개

2 최고의 선택

28만여 개 조달업체 경쟁

3 경제적 구매

거래가격 정보 개방

4 거래비용 절감

서류 제출없이 업무효율 향상

달라진
3가지!

1 조달과정 전자화

조달정보 실시간 공개

2 단일 창구

4만8천 공공기관, 28만 조달기업 이용

3 원스톱 서비스

150여 개 공공기관 시스템 연계

정부합동 부정·부패 신고센터

익명신고가 가능한
정부합동 부정·부패신고센터가
만들어진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신고자 신원비밀을 철저히 보호해서
신고자의 용기에 안심을 더해드립니다



12월 31일 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서
5대 핵심분야 부패척결을 중점 추진합니다



청렴한 대한민국!
국가혁신의 첫 걸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혁 추진과제 01 특허출원관련 엄격한 형식요건 완화



이건... 대단한 발명인걸. 어서 논문을 작성해서 해외 학술지에 투고해야지.



드디어 논문을 완성했어



특허는 출원일 선점이 중요하니 발표 전에 먼저 특허출원부터 해야지.



논문 자체로는 특허출원이 안됩니다. 양식에 맞춰주세요.



불편하신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허는 빠르게 출원하여 출원일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식에 맞춰 출원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논문도 연구결과인데, 왜 바로 출원할 수 없죠?

그래서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논문 내용 그대로, 영어로 작성된 내용으로도 출원일 선점이 가능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저 같은 연구원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네요.



현행
(언어) 국어만 가능
(형식)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개선 (15.1)
(언어) 국어, 영어로 확대
(형식) 논문내용 그대로 출원시 출원일 인정

규제개혁 추진과제 02 은행의 지식재산(IP)담보대출 리스크 경감



우리는 작지만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야. 이 기술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거야.



세계 최초의 기술... 이 특허권으로 대출을 받아 생산을 시작해야지.



OO은행



특허권만으로 대출을 해드리기 곤란합니다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으로 일종의 재산인데 대출이 어렵다고 하네요.



특허청에서는 펀드 조성을 통해 대출에서 발생하는 위험도를 줄여 대출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특허청과 시중은행 간 업무협약을 통해 대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대출을 받았어요. 기술은 있지만 영세한 사업자에게 너무 좋은 제도네요



무형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시작입니다.



현행
(담보대출) 지식재산 처분절차 불명확, 복잡
(모태펀드) 투자대상 프로젝트에 산업재산권 제외

개선 (14.12)
(담보대출) 지식재산 처분절차 명확화, 간소화
(모태펀드) 투자대상 프로젝트에 산업재산권 포함

규제개혁 추진과제 03 거절결정 취소시 심판청구로 반환



뭐, 내 특허출원이 거절됐다고? 거절이유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제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이상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신청합니다.



내가 이겼어. 거절결정을 취소한다는 심결을 받았어.



그런데 심판청구로는 왜 내가 내야하지?



거절결정을 취소한다는 심결을 받았는데 왜 심판청구로는 돌려주지 않나요?



그래서 개선하였습니다.



특허청에서는... 행정비용일 뿐인데 왜 돌려줘야 하나요?

심판에 의한 거절결정취소는 심사의 오류라기 보다 특허성 판단의 차이로 보는데 맞아요.

그래도 국민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돌려줘야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심판 결과에 관계없이 심판청구로 미반환

개선 ('15년)

심사관의 거절결정 취소시 심사대상과 심판대상이 동일한 경우 심판청구로 반환

규제개혁 추진과제 04 출원인을 위한 포지티브 심사



특허청에서 우편이 왔네. 내 발명이 특허 등록된건가?



의견제출통지서... 이걸 뭐지? 내가 특허출원한 내용이 잘못 됐다는 얘기인것 같은데...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정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같은 개인 출원인은 너무 어려워요.



아하, 그러시군요.



그래서 개선하였습니다. 특허청은 예비심사를 통해 보정방향을 미리 알려드리고 특허등록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는 '포지티브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특허청 000심사관입니다.



2015년부터 더욱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너무 편리한 제도입니다. 감사해요.



000씨께서 출원하신 특허는한 문제가 있어서 추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방식으로 보정하시면 특허로 등록가능합니다. 예비심사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이해가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심사착수 전 출원인과 심사정보 공유없이 거절이유만 나열하여 통지

개선 ('14년 시행)

예비심사제도(심사착수전 거절이유 설명 및 보정방향 제시) 및 거절이유통지 시 보정방향 제시 제도 도입

규제개혁 추진과제 05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



이번에 협력업체에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우리회사의 투자를 요청하는데요.

너무 좋은 기술이네요. 특허출원을 먼저 하라고 하고 등록되면 바로 투자하도록 하죠.

김과장님, 저번 협력업체 투자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그게 특허가 등록되려면 1년이 넘게 소요된답니다. 특허등록이 되어야 기술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서요.

음...걱정이에요. 빨리 기술투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특허등록이 이렇게 늦어서...



좋은 기술에 투자하고 싶어도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처리기간이 길어 투자결정을 하기 힘듭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개선하였습니다.



특허심사처리기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목표대로 단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



* 출원부터 특허청의 First Action (등록결정 or 거절이유통지)까지의 기간을 의미
출처: '지식재산 동향 및 미래전망',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13.12)

해외 연구사례

'Economic Study on Patent Backlog' (London Economics, 2010)

- 심사처리기간이 1년 지연될 경우, 미국·유럽·일본 3개 특허청 기준으로 연간 118억 달러(13조 3,800억원)의 경제적 비용 발생

규제개혁 추진과제 06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통한 국민부담 완화



작은 기업은 특허수수료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어요. 특허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전 만19세인데 대학생이 아닌 이유로 특허수수료 지원이 되지 않아요. 불합리 합니다.

나처럼 은퇴한 사람은 특허수수료가 너무 부담이 돼. 수입도 없는데...

특허등록료를 압박하고 내지 않았더니 등록료의 2배를 내야하네. 휴우~~



이러한 의견들을 모아 특허수수료를 합리화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등의 연차등록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주네요. 감사합니다.

개선('14.3)

개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4~6년분 등록료 30% 일괄 감면 및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정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4~6년분 등록료 20% 추가감면



우리도 특허수수료 85% 감면받아요.

개선('14.3)

청년(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인 자)와 원로발명가(65세 이상인 자)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85% 감면 신설



추가납부기간 경과일수에 따라 차등으로 납부하니 좋네요.

개선('14.3)

추가납부기간 경과일수에 따른 가산구간을 6단계로 세분화하고 가산비율도 매월 100분의 3%의 가산하도록 하여 6개월에 납부하더라도 최고 18%로만 부과하도록 가산비를 인하

특허수수료의 합리화를 통해 연간 약 90억원 정도 ('12년도 수입기준) 국민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적 기대효과(연간)]

68억

연차 등록료 감면

3억2천

청년 은퇴 세대 감면

17억

가산 금액 인하



규제개혁 추진과제 07

디자인 국제출원 절차의 간소화



좋은 디자인이야. 세계에 수출하려면 디자인등록부터 받아놔야지.



세계 각국에 디자인출원하려면 국가별로 출원해야 하고, 국가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OO 변리사 사무소



어휴~~ 너무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구나. 한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는거야?



여러 국가에 한번에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헤이그협정 가입을 통해 '디자인국제출원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간접 국제출원방식



헤이그협정소속 통한 디자인국제출원방식

'14. 7월 시행



한번의 디자인출원으로 77개국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디자인국제출원제도'는 연간 약 6억원의 국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약 1,600여개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디자인국제출원이 활발해 질 경우 더욱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개혁 추진과제 08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상표등록 금지 폐지



앗... 이 상표는...우리가 사용하려고 했던 상표인데...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했네.



이번 신상품부터 OO상표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권리자가 상표권을 포기했더라고요.



어머, 잘됐어요. 우리 제품이미지랑 잘 어울리죠. 상표출원부터 하세요



OO상표를 출원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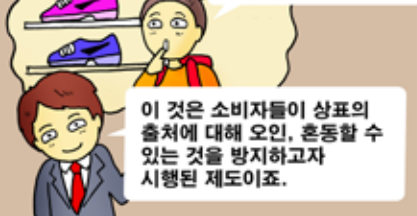
곤란할 것 같습니다. 상표가 소멸된 날부터 1년이 넘지 않아서요.



상표권 소멸 후 1년간은 왜 상표등록이 금지되는 거죠?



어.. 한동안 안나오다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네.



이 것은 소비자들이 상표의 출처에 대해 오인, 혼동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행된 제도이죠.

하지만 실제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보다는 어려해 동안 실제 사용하지 않다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멸된 상표가 대부분이어서 불합리한 제도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표를 등록하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겠어요.



현행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간은 타인의 등록을 배제

개선 (15년)

상표권 소멸후 1년을 기다림 없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규제개혁 추진과제 09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



앗,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내 특허권이 소멸했다고?



특허기술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 틀렸어.



걱정말아요. 추가납부 만료일이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회복 가능할 거예요.

제 특허권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소멸된 특허권은 '실시 중인 특허발명'이 아니므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소멸권리의 회복요건을 '실시 중인 특허발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개선하였습니다.



소멸권리의 회복요건을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허발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확대

또한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해야 소멸권리가 회복되던 것을 2배 납부로 완화하였습니다.

완화

정말 다행입니다.



현행

특허권자의 불가피한 사유, 실수 등으로 소멸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요건: '실시 중인 발명'으로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도록 제한

개선 (14.6)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허발명으로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하면 소멸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

규제개혁 추진과제 10

영상구술심리제도 도입



내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이 심리일이 잡혔구나



그런데 구술심리를 하려면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까지 내려오라고?



구술심리: 심판사건 당사자가 심판정에 출석하여 심판부에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의 변론에 해당

특허청이요? 구술심리를 하려면 대전까지 가야 하나요?



네, 현재 특허심판원이 대전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데 특허심판에 대한 구술심리로 대전까지 가야하네요?



불편하셨죠? 그래서 개선하였습니다.



수도권에 계신 심판당사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영상구술심리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현행

구술심리는 수도권의 심판당사자가 대전으로 오거나, 심판부와 지원인력이 서울로 출장하여 수행

개선 (14.4)

대전청사와 서울사무소를 연결하는 '영상구술심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심판당사자 불편 해소

영상을 통해 대전에서 진행되는 심판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